제27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 5 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5. 재무국 시의회 보고
6.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8.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
9. 2018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 2면
2.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김기대、문형주、박기열、박진형、박호근、성백진、성중기、송재형、오승록、유동균、이승로、전철수、최웅식 의원 발의) ····· 9면
3.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동율、김영한、김인호、김진철、박기열、유광상、유용、전철수、최영수、허기회 의원 찬성) ····· 10면
4.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 11면
5. 재무국 시의회 보고 ····· 24면
6.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동율、김제리、박진형、서영진、신원철、우형찬、유광상、장우윤、최판술、황준환 의원 찬성)····· 25면
7.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 27면
8.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 ····· 51면
9. 2018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 54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종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정보기획관,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의견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8분)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울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 부지가 예전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부지지요?

○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최승대 체육진흥과장 최승대입니다.

그 사항은…….

○김용석(도봉) 위원 모르세요?

○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최승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최승대 네.

○김용석(도봉) 위원 이게 아파트 거의 정면 아마 앞 베란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을 텐데 건물이 들어오면 저층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최승대 네, 그 뒷부지에 바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거기보다 하단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네, 좀 단차가 있지요.

○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최승대 단차가 있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지하2층, 지상3층이기 때문에 조망권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래요.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지역주민들하고, 아니면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최승대 알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한강개발 관련해서 강맹훈 기획관님?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안녕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피어데크 전부 다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또 시의회에서도 지난 8대, 9대 계속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한강의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왔고 문제제기 해 왔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사업 자체가 거의 다 과거에 한강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개발 중심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이쪽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된 바 있고요.

지금 한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저희가 약간 추진이 늦어지는 게 환경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추진을 약간 늦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그다음에 한강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맞는데 이게 상충하는 거예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이것하고 개발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전문단체의 공청회 같은 과정이 좀 있었나요, 우리가? 몇 번 있었어요?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한강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용석(도봉) 위원 시민위원회 말고 시민들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게 사업예산이 다 국가에서 반영돼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반영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서울시 정책하고 안 맞으면 그냥 반납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 얘기는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의 공론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필요하다, 50년, 100년 앞을 대다보면서.

그리고 사실 지금 한강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도 뜯어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시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강맹훈 국장님, 이 한강의 편의시설,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최초에 기획이 됐었던 예산규모라든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지금 4건 합쳐 가지고 1,8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최초에 1,890억이었어요,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네.

○**서윤기 위원**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1,890억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그렇습니다. 최초는 이게 이 사업만 별도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전체 한강을 다 합쳐서 최초는 한 2조 정도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2조 사업이 가지 칠 것은 가지 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박 시장님께서 정부에 들어가서 협의했었던 그 내용은 또 어떻게, 경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정부하고 합의한 게 4,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 한 2,000억 정도는 대부분 자연성,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제방을 다시 자연제방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여의도지역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불편한 시설이, 너무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지역만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 총계는 한 4,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자연성 회복에 4,000억…….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자연성 회복에 2,000억입니다.

○**서윤기 위원** 복합문화시설에…….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2,000억입니다. 같이 2,000억입니다.

○**서윤기 위원** 2,000억, 복합문화시설, 그다음에 선착장 관련해서 한 2,000억 된다 이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선착장하고 복합문화시설하고 한강 여의테라스 다 합쳐서 2,000억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800에서 2,000억 정도 사이에 있다 이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도 최초에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목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강의 수중보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다 이런 생각을 죽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 지방선거 출마할 때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해요, 수중보 철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와 어려움 때문에 한강 수중보 철거 및 자연성 회복이 지금 더디게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복합문화시설, 수변문화 집객시설, 편의기능, 관광 활성화 이런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여의도에 복합문화시설이 한강 주변에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사람은 거기에 모여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새들이 깃들고 어린이집을 만들어놓으면 어린이들이 그 안에 모이고 놀이터를 만들면 애들이 모이는 것처럼 복합문화시설을

거기다 만들면 사람이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한강에 주는 장기적인 영향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 문화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공연시설도 만들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또 공연시설도 만들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 주변에다 호텔 만들자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성 회복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것이 마중물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강 보십시오. 여의도가 사실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일 복합문화시설이 많은 곳 아닙니까? 편의시설이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들 때 부작용이 크지 않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저희가 지금 이번 계획에서는 대부분 복합문화시설이고 한강의 특색을 살리는 시설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강 여의도부분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도 자전거라든지 보행사고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보행사고나 자전거사고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저희가 동선을 바꿀 예정입니다. 동선을 분리해서…….

○서윤기 위원 동선을 바꾸어도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예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 여의나루역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5월에 벚꽃 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 밤도깨비야시장 ’ 이런 것 한번 하면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복합문화시설이 또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텐데, 차량들도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저희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서윤기 위원 다 사업을 미룰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바로 지하철역 옆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아주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시원하게 위원님들께서 밀어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멋지게 해 보십시오.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했는데 어떤 국ㆍ과장님들의 설명 한번 딱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거 반드시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소문나게, '야, 완전히 부정적이었는데 한 방에 그냥 넘겼다, 통과시켰다' 이런 소리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제가 그럴 능력은 안 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강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한강이 자연성 회복하는 데는 회복을 하고, 사실 이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연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강이 지금 어느 대도시의 강보다 저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이용되는 것을 정말 한강에 와서 추억을 남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 문화복합시설은 지금 새로운 도서관 개념으로 사람을 모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한강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을 접하는 게 아니고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모이면 어린아이들이 거기 왔을 때 어머니들이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고, 그렇게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서윤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 위원 블루스퀘어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문화시설과장 오희선입니다.

○조규영 위원 지난번에 다 질의를 했던 사안이어

서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배석하셨나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뒤에서 배석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때 제가 서정협 본부장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이잖아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건물은 무상사용인데 토지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 사용기간이…….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20년입니다.

○**조규영 위원** 20년이잖아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조규영 위원**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지요? 10년?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6년.

○**조규영 위원** 6년?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조규영 위원** 네, 6년이 지났습니다.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2031년까지입니다.

○**조규영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이번에 증축이 이루어지면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조규영 위원** 그때 사용기간은 변화가 없다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지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서로 공문이 오고갔다, 그러니까 사용기간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기재된 공문이 오고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기억납니다.

○**조규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오고간 공문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의하면 관련한 것은 그겁니다. 2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기존 협약은 유지한다, 관련 문구가 이겁니다. 아시나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래서 기존 협약은 유지한다, 이게 기간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지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조규영 위원** 그래서 협약서를 봤거든요. 기존 협약을 유지한다고 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사용기간에 변화가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조규영 위원** 그래서 기존 협약서를 봤는데 기존 협약서에서 이렇게 증축이 될 경우에 사용기간은 원래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법률자문을. 그랬더니 법률자문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하고 문화본부장님하고 주고받은 질의응답이 해소가 지금 안 된 거예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맞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인터파크 측에다가 명확히 해 달라,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2031년에 모든 증축사항도 같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오늘 중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조규영 위원** 오늘 중으로 받기로 하셨어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네.

○**조규영 위원** 저희가 오늘 여기서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받기로 하셨어요?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지금 와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서울시와 인터파크 간에 오고간 공문상으로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본부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제1부

시장님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 결과 세출예산이 세입보다 6,142억 원 초과돼서 세입 확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래서 지방세를 더 거두어들이는 방안,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다 검토해 보아도 5,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의료원 매각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사유로는 금년 2017년 예산 대비 기초연금이 3,000억 원, 아동수당이 2,200억 원, 의료급여가 1,148억 원, 주거급여 등 4,000억 등의 사회복지비용이 1조 500억 원이나 늘어났다, 그래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공유재산 매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셨어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한마디로 땅 팔아서 생활비에 쓰겠다는 얘기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명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내년에 기초연금도 인상되고 아동수당도 인상되는데 국가에서 전액 보조는 안 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또 낮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는 않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을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민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도 고민했지만 지방채는 결국 후세에 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저희 집행부는 서울의료원 부지가 미래의 중요한 가치지만 현재도 서울시민에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명희 위원** 문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사회복지비용이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까지 구조를 조정하면서 지방세수를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이명희 위원** 올해나 내년까지는 의료원 부지 팔아서 그것으로 충당한다지만 그다음에는 또 어떡합니까? 지금 그런 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고 너무나 미온적인 방안인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양해해 주시면 이원목 재정기획관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저보다는 이원목 국장님 답변이 더 위원님들에게 호소력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원목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이원목** 재정기획관 이원목입니다.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언론보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 5월에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방분권, 또 그중에서도 재정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국세, 지방세 구조를 현재 8 대 2 구조에서 7 대 3 또 장기적으로는 6 대 4 구조로 개편을 하겠다는 것들이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고보조금 관련 시스템이 기재부나 중앙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원칙하고 불합리한 구조에 의해서 저희 시가 별도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사실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는 한 1조 2,000억 정도를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체재원들을 확충해 나가면서 기존의 국고보조 제도나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모시고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년 아동수당 신규 도입이 되면서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내년 3월까지 전체적인 국고보조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안을 내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서울

시 재정구조를 좀 더 건실하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나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에 기대를 걸어 본다는 막막한 얘기만 지금 해 주실 뿐이지 그냥 막연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생활비가 부족하면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사회복지비용은 한번 나가면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중에서 어디를 줄여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셨겠지요? 당연히 저는 신규 사업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신규 사업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니까 816개 신규 사업에 1조 4,891억 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1조 4,891억 원이 들어가는 816개 신규 사업을 이런 상황에서 굳이 벌여야 될 것인가? 지금은 이런 신규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고 이런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때지 이렇게 없는 돈에 신규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 증액된 내역들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데 시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에 한 2,200억이 들어가고요 기초연금에 또 한 3,000억 가량이 들어가고 또 의료급여 예산이 1,000억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한 1조 500억 되고, 그리고 내년도 시세 증가에 따라 자치구나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명희 위원** 그것은 부족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하고 별도로…….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이원목**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6개 신규 사업이라는 것들이 저희 예산 코드 번호에 의해서 신규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 한 2,200억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개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00여 개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일단 예산 분류상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희 위원** 주민참여사업이 500개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이원목** 네, 500개 조금 넘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리스트를 각 실ㆍ국별로 분류해서 주세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이원목** 네.

○**이명희 위원**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을 500개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땅을 팔아서 신규 사업을 강행하겠다, 주민참여사업을 500개나 늘려서라도 지불하고 하는 것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 보여주기 사업, 선심성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이원목** 위원님, 주민참여사업이 개수는 많지만 전체 금액은 한 590억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측면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직접참여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희 위원** 취지는 좋지만 보통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이렇게 재정이 취약한데 무조건 나눠주기 사업을 신규로 벌일 필요는 없는 거지요. 됐습니다.

재무국에서도 공유재산을 매각에서 이런 선심성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그대로 서 계세요.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듣고 있을 거니까 제가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윤준병 기조실장이 국회에 간다고, 그래서 “왜 가느냐?” 하니까 국비지원을 받으러 출장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것은 높이 치하드리고요.

다만, 방금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의 우려 깊은 질의내용에 깊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치도 잊지 않고 업무에, 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려 깊이 이야기하신 이명희 위원님의, 내용

자체는 알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이원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가 좀 유념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이원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영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45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사업 건과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건 및 한강 피어데크 조성사업 건 등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저해 및 위탁개발 방식의 적정성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 가능성,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이 있고, 블루스퀘어 증축 기부채납 건은 관리운영자 업무공간 이주 확장 및 증축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연장요구 분쟁 대비 법리검토 등을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 중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추진되도록 하고,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기도 전에 미리 각종 사업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리계획 의결권을 훼손하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하며, 서울시의 주요사업들이 각종 법적검토 및 사업타당성 등을 거쳐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김기대、문형주、박기열、박진형、박호근、성백진、성중기、송재형、오승록、유동균、이승로、전철수、최웅식 의원 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신 맹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금결산보고서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금번 조례개정은 집행부의 기금 사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령체계 및 연계성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편, 조례 제2조에서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는 2016년 11월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과 분법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변경되었는바, 재무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재무과장 신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서울시 결산서에 첨부하여 제출、심의되던 기금결산을 서울시 결

산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의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결산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기금 사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3.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동율、김영한、김인호、김진철、박기열、유광상、유용、전철수、최영수、허기회 의원 찬성)

(11시 1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교통위원회 소속이신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상위법의 주관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재무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의안번호 제2266호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회계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4.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재무국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소비심리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긴장 고조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대중국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에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최대 과제로 삼아 체계적 세수관리 등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해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무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조 6,177억 원 증가한 17조 7,66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7조 965억 원, 세외수입은 6,6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특징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 전망에 힘입어 금년 예산 4조 2,298억 원보다 14.6%인 6,185억 원이 증가한 4조 8,4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4조 3,946억 원으로 금년 예산 4조 70억 원보다 9.7%인 3,876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나,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올해 징수전망액 4조 9,794억 원 대비로는 11.7%인 5,848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금년 예산 2조 1,664억 원보다 9.4%인 2,030억 원 증가한 2조 3,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추계액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1조 559억 원보다 14.8%인 1,568억 원이 증가한 1조 2,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주변부지 개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가능성이 상승함에 따라 서울의료원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646억 원 증가한 5,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비징수관 부서 발생 수입을 각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금년 예산 87억 원보다 77억 원이 감소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3%인 1,586억 원 증가한 2조 3,207억 원으로 그중 사업비 1,144억 원, 기본경비 20억 원, 인력운영비 7,107억 원, 자치구교부금 및 출연금 1조 4,936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비해 106억 원 증가한 1,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증가한 사업은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로 서울의료원 유상이관비를 조기상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금년 대비 95억 원 증액된 9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억 8,000만 원,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억 3,000만 원,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사업은 지원인력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의 사유로 1억 4,000만 원 감소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통합 편성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원과 공무직 봉급 및 수당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41억 원 증가한 7,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금 및 출연금은 금년보다 1,137억 원 증가한 1조 4,936억 원으로 그중 공동재산세 전출금 1조 958억 원과 면허세 보증금 324억 원 등 재정보전금이 1조 1,282억 원입니다.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을 3,614억 원 편성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2017년과 2018년의 2개연도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에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최종예산 대비 6.5% 증액한 31조 7,429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자치구 및 교육청 교부금 등 의무지출 증가, 생애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로 인한 복지예산 증가, 청년ㆍ장애인ㆍ저소득층 일자리 예산 반영에 따른 세출예산 증가로 전년보다 다소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같이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내년도에 3.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수입과 관련되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저금리 기조의 유지 및 서울지역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금년도에는 부동산 거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금년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취득세 등 세입여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 증가된 17조 7,660억 9,400만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9.9%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9%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중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감소 가능성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민세입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세는 종합적으로 균등분ㆍ재산분ㆍ종업원분 주민세 모두 사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 규모는 매년 소폭 증가추세라 할 수 있으나, 종업원분 추계 시 내년도 정부에서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이 확장적으로 편성되어 고용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임금인상률 3%를 반영한 것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21쪽 중단입니다.

내년도 정부에서 제출한 소득세 및 법인세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7%, 추가경정예산 대비 7.3% 증가한 136조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에서 편성한 지방소득세는 금년 예산 대비 14.6%를 편성한바, 세입예산을 다소 공격적으로 추계 및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후 지방소득세는 증가 추세이며, 정부도 매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경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내년도 세수 신장률을 고려하여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세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세목이라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세수추계는 내년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바,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재정운용상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계는 세출예산의 규모에 맞추기 위한 적극적 추계보다는 실질적인 세입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방소비세입니다. 중단입니다.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67조 3,474억 원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실제 민간소비 증가 효과가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예산안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1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로 국내소비 감소 가능성 내재,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국내 불안 상존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2018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은 과대하게 추계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소비세의 직접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세입감소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ㆍ추계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논의사항 중 지방소비세 인상이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지방소비세 인상 시 서울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함께 재무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레저세입니다.

내년도는 실내경마장 신설에 따른 민원 발생에 의한 용산구 화상경마장 폐쇄 등 세입 증대에 한계요인이 있으나 광진구 화상경마장 신설 효과 등으로 2017년도와 징수세액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후 최근 4년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유형별 세액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저 세입분만을 제외한 세수추계는 보다 적극적인 세수추계 방식이라 할 것인바, 세출 소요에 맞추기 위한 과도한 세입추계를 지양하고 각 세입항목별 경기상황과 세입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하단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이전수준으로 인하하는 담배소비세 인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인상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본 세목의 경우는 세입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추계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입입니다.

2018년도 지난연도 시세의 경우는 전년 대비 1.4% 증액한 2,36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 체납자 특별관리, 가택수색 등을 통한 재산은닉자 추적활동, 신규 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등으로 매년 징수규모는 일정한 추세이나 신규 체납 증가에 따라 체납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38세금징수과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활동 전개를 통해 징수 가능한 세입은 상당부분 징수하고 대부분은 징수가 어려운 체납분이며 체납자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 징수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2018년도 지난연도 시세 예산편성이 체계적인 기법에 의한 추계가 아닌 목표달성이나 이에 따른 체납징수포상금을 염두에 둔 과소한 목표설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세목별ㆍ납세자별 체납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징수대응체계를 위한 맞춤형 체납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의 합리적인 배분 및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징수 담당직원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자치구의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및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및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한 6,696억 1,900만 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2017년 징수전망액이 106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세입도 지가상승률에 따른 세입증가액만을 반영한 다소 적극적인 세수추계로 보입니다.

자치구에 위임된 공유재산의 경우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누락,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가액의 산정 등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한 세원 발굴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위탁업체의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76.3% 증액된 44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예금 평균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간 금리 비교를 통해 2018년도에 금리인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적정한 유휴자금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중간입니다. 2018년도 시유재산 매각수입에는 서

울의료원 매각수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정부의 복지확대에 의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재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나 서울의료원은 매각재산 예정가격이 9,363억 원으로 2014년 이후 공개 매각을 통해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매각이 유찰되어 왔으며, 2017년도 시유재산 매각수입도 당초예산 대비 10%인 514억 원만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14년 이후 해마다 막대한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세입결손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바, 지방재정법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재무국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8년도에도 경기상황에 따라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바, 확보 가능한 실질 세입규모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함께 세입결손 시 이에 대비한 세입조정 등 재무관리 측면에서의 적정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2018년도 재무국의 세입추계는 먼저 지방소득세의 근간인 국세의 2018년 세입은 전년 대비 7.7% 증액 편성한 반면, 지방소득세는 14.6% 과다 증액 편성한 점,

둘째,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2018년도 부동산 취득세를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한 점,

셋째, 지방소비세는 그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을 전년 대비 7.7% 증액 편성한 반면, 지방소비세는 14.8% 과다 증액 편성한 점,

넷째, 2014년 이후 계속되는 유찰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차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무국의 2018년도 세입예산 추계는 상당부분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비한 세입조정 등 적정한 예방조치와 세원조정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확보 등 중장기적인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하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6년 불용률 32.8%에 이어 금년도에도 22.1%의 불용이 예상되는 등 매년 20% 이상 큰 규모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 조사 및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50쪽입니다.

동 사업 중 연금지급금은 2017년에는 12.9%의 불용률 발생이 예상됨에도 2018년 예산으로 2017년 예산 대비 7.9% 증액한 6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도 불용률 28.0%에 이어 매년 10% 이상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되고 있는바, 실질 소요예산 등을 감안한 예산삭감 조정 등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52쪽을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중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로 2015년에 6억 6,300만 원, 2016년에 6억 1,500만 원을 집행했으나 매각이 유찰되면서 12억 7,800만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재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결산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또 다시 편성하고 있는바, 매각 불발 시 또 다시 매몰비용이 발생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입니다.

2017년 미지급 출연금과 2018년 출연금 합계액인 40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3쪽 하단입니다.

금번 예산과 관련한 출연동의안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입규모 순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바,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재무국의 보다 적극적인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물에 대해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청사매입 낙찰잔금을 지급한 바, 청사 구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논의 및 낙찰금액이 적정했는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활용한 청사 매입비 사용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납세조합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9.7% 증액된 5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으나 국세 징수교부금은 누진제로 평균 2.3%를 지급하고, 지방세의 경우 5%의 징수교부금을 고정 지급하고 있는바, 국세 대비 지나치게 많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납세조합 제도는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민간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세정제도에는 부합되기 어렵고 납세조합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납세조합의 지급률 인하, 직접 징수 또는 제도폐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등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전자고지 마일리지 적립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금액이 현재 1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한편, 재무국에서는 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등 공공포인트와 주식회사 우리은행 꿀머니 등 민간 금융 포인트의 통합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포인트 통합대상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인 바, 외연 확대와 더불어 서울시에 산재되어 미사용 중인 홈페이지 마일리지 등 내부 포인트 간 통합도 적극 추진하여 포인트 사용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시효완성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5.2% 감액한 24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 2017년도 8월말 현재 지난연도 세입의 경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13.4%로 나타나고, 최근 5년간 징수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어 허술한 서울시의 시세관리 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이 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시민제보에 의해 체납을 징수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2016년에는 39.9%, 2017년에는 76.7% 불용이 예상되는바,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므로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제도의 홍보 강화 및 명단공개 방법 강화를 통한 연계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체납징수기법 개발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의적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눠먹기식 징수포상금의 지급 등 예산집행 행태 또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체납 세입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치구 공무원에게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체납징수포상금 지원이 적정한지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 검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체납징수 공무원의 징수노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최근 열악한 재정에 일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창수** 네,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체납징수 활동을 더 강화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예산안은 더 적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18년도에.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조규영 위원** 지금도 사실은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물론 예산이 반영된다고 해서 징수를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더 지급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 정비가 된다든지 이러면 체납징수가 그래도 더 좀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있는데 이렇게 더 적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리고 이것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지난 행감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금년도 체납시세 총력징수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하고 12월 중에도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작업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체납시세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했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공단 인력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내년에 한 5명 정도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서 38 세금징수과 예산이 줄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체납징수는 구청과의 협조도 중요하고, 또 직접 체납징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치구와의 협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력 그런 협력사업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체납시세 징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연초부터 활기찬 체납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래요, 당부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과장님은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 몇 % 갖고 계세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저 개인을 떠나서 저희 재무국이 그런 부분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해서 내년 한 해 좀 더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래요. 하여간 10%대 초중반이 지금 현재 징수현황이거든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래서 적어도 한 20%대까지는 올려보실 수 있겠어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2017년보다 내년도에 25개 자치구로 교부되는 교부금이 늘어났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2018년도 재정보전금

예산은 2017년 1조 1,107억 원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한 1조 1,282억 원입니다. 그래서 175억 원이 증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 25개 자치구에 주는 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박호근 위원** 그다음에 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 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저희가 편성 안 하고 평생교육국에서 아마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상세 규모는 정확히…….

○**박호근 위원** 총액 규모는 얼마나 돼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한 3조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 3조 원 정도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박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적게 잡혀 있긴 한데 마을세무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박호근 위원**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비용 및 홍보물 제작 비용, 마을세무사 그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사실 마을세무사는 기존에는 재능기부 성격으로 무상봉사 성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마을세무사를 지정해서 필요하시면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일단 필요시에는 세무사분들께서 민원인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도 가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의 여비를 실비 보상 성격으로, 재능기부도 좋지만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제가 2016년도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이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작년 것, 그렇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박호근 위원** 정확히 말하면 올해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올해.

○**박호근 위원** 2017년 미지급금,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2018년 지급금 포함해서 40억 4,30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논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이사장이라든지 감사 선임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비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국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오늘 대표자로 발언을 하시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보다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이번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혹시 설치했어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아마…….

○**서윤기 위원** 기조실에서 할까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재무국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경우에 돈을 막 쌓아놓을 수는 없고 다음연도에 다 또 편성해서 확장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급작스럽게 다음연도나 그다음연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적립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조실에서 다 조정을 해야 되나? 재정안정화

기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전체를 총괄할지라도 그것 관련해서 재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서윤기 위원님 의견이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세입이고요 어쨌든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 재정관리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기 위원** 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협업은 필요하고요.

○**서윤기 위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더 적절한지……. 돈을 이렇게 모아놓는 데잖아요. 그리고 세입과 관련된 거잖아요. 세입이 많았을 때 모아놓고 세입이 적었을 때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기조실 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어떻든 적절하게 부서들이, 저는 그 기금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도 늘 이렇게 곳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2010년이나 2011년 예를 봐서. 그때 누가 서울시가 그렇게 곳간이 텅텅 빌 줄 알았겠습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올해 재정보전금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2018년 예산에 미뤄왔던 것도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을 막 벌이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도 그것을 좀 기금으로 모아서 정말 필요할 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시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일단 서윤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기조실에 전달하고 또 재무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기회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부사업별 인력운영비 보면 불용 발생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공무직인데, 이 부분은 직급이 나뉘어 있지 않고, 또 퇴직과 신규채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편성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을 편성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순자 위원** 그래도 10% 미만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32.8%고요 올해 지금 현재 22.1%예요. 그렇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런데 위원님, 일단 저희들 예측은 12월에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연중 급여인상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80% 정도는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80%는? 그래도 20%는 있네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한 2%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낮게 감편성했나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이순자 위원**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이것도 궁금해서요.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보면,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가는 것을 말하나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렇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모바일 통해서.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건수만 나와 있어요, 건수 22만 5,000건, 지로, 신용카드납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 건수를 보낼 때 이것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기준은 뭐예요, 문자를 보낼 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ETAX에 본인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받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 동의하신 사람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이순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홍보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통 인터넷에서 그런 게 많이 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홍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일단…….

○**이순자 위원**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예산은.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위원님, 40페이지 중간 보면 시스템 개발비 1억 6,5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계시스템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뭐냐 하면 g2b라든지 e-호조라든지 인증정보 같은 것에서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모니터링을 구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이라고 해서 그런 품질향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별도로 추가 편성됐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갑자기 늘어나면 이렇게 예산을 볼 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것 보니까 보통 한 30% 정도……. 30%가 넘는구나, 이게요. 늘어나서, 지금 보느라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운영비는 12월 말에 8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20% 정도의 갭이 있으면 그것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하실 때 낮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전 계획을 수립할 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아마 38세금징수과 같은데, 포상금 가지고 직원 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설명 좀 해 봐요.

체납시세 받으라 했더니 그 부서에서 직원 간에 포상금 가지고 알력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다는 것이…….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입니다.

관련 부분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는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체 위원들 계시는데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 38이라는 부서가 대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명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내부문제가 불거져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결손담당 직원들이 6명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제 라급으로 해서 임기제 계약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급을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수당 포함해 가지고 거의 3,000만 원에 육박하는 임금을 받고 그 나머지는 포상금 가지고 되는 것인데, 거기에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려도 있고 해서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징수금 외에 기본 공제 항목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1억 4,100만 원을 기본 공제금으로 두고 있는데 그 항목에 보면 사무실 사용료, 또 차량 이용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결손 담당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 포상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가 많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징수 공무원들은 징수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욕설도 얻어먹으면서 조세저항이 아주 심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 죽 수년 동안 해 오면서 어느 게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해서 오늘날까지 온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시대가 바뀌면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자면 내부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그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결손담당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권익을 저희가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거기 좀 계세요.

설명은 들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러한 징수포상금을 가지고 자체 내의 갈등문제, 제도미비 문제를 과 안에서라든지 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가지고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의 답변이나 이 앞에 본 위원장한테 설명이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않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월급 받는 공무원이 그 외로 포상금을 받으면서 그것 가지고 자체 내에서 갈등이 생겨 가지고 언론에 표출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체납시세를 징수하고 뭐하고 하겠어요?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아무튼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창수 근본적으로 지금 국장이 안 계시는데 조직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 연봉이 3,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해도 200만 원이 넘잖아요? 시중에 우리 서민들은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공직에 있으면서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서민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밖에 나가면 떨고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언론에 표출되고 서울시 전체 공직에 먹칠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엎드려 백배 사죄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말이야. 앞으로 재무국 전 직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세요. 알았어요?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따라서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포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내년도 업무보고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지요, 재무과장?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꼭 개선방안을 보고하세요.

들어가십시오.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한 결과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출연금 요율이에요, 지금.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요율인데 전전년도 보통세 0.015%를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0.010% 정도로 내렸으면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한 번에 하는 게 과하다고 한다면 그 반 0.0125%로 하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린다든지 무슨 노력이 있어야지 말이야, 또 다시 우리가 출연금 가지고 홀딩해야 되겠어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서울시가 붙잡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타 시ㆍ도는 말을 못합니다, 행안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행안부에 있어서는 그 통제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요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해 줘요. 또 이러면 출연금 붙잡겠어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 강경한 분위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관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김용석(도봉)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창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도봉) 위원** 먼저 전용내역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땅 밑에 폐기물이 있어서 처리비용을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물어줬다 이런 내용이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아직 보고는 안 드렸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아, 보고내용입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김용석(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후에 다루겠습니다.

레저세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세입을 잡았다가 징수가 안 돼 가지고 목표 대비해서 85% 정도로 징수가 잘 안 돼서 애를 먹다가 2016년부터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잡고 해서 징수가 100% 이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2016~2017년.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김용석(도봉) 위원** 내년도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는 너무 또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보다는 53억 정도 늘려서 잡았긴 한데?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진구 워커힐호텔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런데 또 용산구는…….

○**김용석(도봉) 위원** 용산이 없어졌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폐업되니까. 이게 어느 한 부분은 증가가 전망됩니다만 어느 부분은 또 감소가 예측되는 그런 양면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전망은 한 103.8% 정도, 예상보다는 좀 더 걷힌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담배소비세인데 담배소비세는 줄여서 잡았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김용석(도봉) 위원** 98억 정도 줄여서 잡았는데 6,342억에서 6,243억으로, 그런데 최근에 궐련형 담배의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금연정책이 확고한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에 대한 금연 홍보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세입 증가요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증가와 감소부분이 같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그나마 약간 증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니까 6,342억이 12월 31일 올해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목표 대비 얼마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6,376억을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뭐 100% 간신히 넘어가네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전자담배에 대한 세입 증대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를 작성하잖아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 인쇄를 하

겠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몇 종을 인쇄합니까?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는 공동세니까 우리 서울시가 하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세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세 종류, 재산세, 주민세, 또 뭡니까? 자동차세입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이 디자인은 외주를 맡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외주용역을 맡겨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칩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래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김용석(도봉) 위원** 매년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입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매년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매년?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1년 단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래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김용석(도봉) 위원** 지금 고민이 뭐냐 하면 고지서를 받아보잖아요. 사실 저도 복잡해요. 거기에 보면 고지 만기일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만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거고, 여러 은행의 계좌번호들이 공지되고 죽 하잖아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김용석(도봉) 위원** 법적조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인데, 물론 작은 고지서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긴 한데, 보통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어르신들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보통 자녀들이라든가 옆집에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고령인구가 늘면서 활자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글씨도 작을 뿐더러 명확하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과오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 일단 전체 서울시민의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일단 고지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렇겠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그것을 기본 위주로 메인으로 하다보니까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려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지서의 성격에 부합하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계약업자가 아직 최종 선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올해 선정되면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개선된 모습이 보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표를 하나 사더라도, 아니면 보험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들을 다 고지해요. 그런데 너무 깨알 같아서 정말로 이게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지요. 그런데 사실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시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줄일 부분은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키울 건 키우고 해서 뭔가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관례답습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무국 시의회 보고

(14시 15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무국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릴 건은 동일사업 내 목간 전용 1건입니다.

동 건은 2013년과 2015년에 매각된 시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금 지급 건입니다.

2016년도 9월 6일 처음 소가 제기되어 매각 당시 공고내용에 따라 우리 시는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였으나 2017년도 9월 26일 1심 판결에서 우리 시에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일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판례와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르면 항소하여도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자부담 감소라든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사무관리비 예산을 배상금 등으로 목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도봉) 위원**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예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2782번지하고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방배동이면 서초구인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폐기물을 누가 묻은 거예요, 땅 속에? 범인 잡았어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이게 2004년도에 기상청과 교환한 부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인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아니, 폐기물이 2004년 전에 묻힌 거예요, 2004년 후에 묻힌 거예요? 몰라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2004년 전에 묻힌 것 같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기상청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지요, 우리가. 땅 밑을 확인 안 한 우리의 잘못입니까?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김용석(도봉) 위원** 아니, 땅을 살 때 예를 들어 밑에 폭탄이 묻혀 있는지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땅을 사서야 되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가 불법 매립이 없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땅 팔아놓고 나중에 폐기물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시 상대로 소송해서 6,000몇 백 만 원의 세금이 또 낭비된 거잖아요.

과장님, 시민들이 이것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아마 그 과정에 2004년도는 솔직히 부지 매입할 때 한마디로 기상청이 정부기관이니까, 또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해서…….

○**김용석(도봉) 위원** 아니, 정부기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이게 관리부서가 어디였어요? 우리 재무국 소관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부서 소관이었어요?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소유는 저희 재무국이고요 관리는 시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자치구에 위임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래도 재무국 소관이었으면 재무국이 잘못했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6,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시유지들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할 텐데 그 과정에 뭔가 재발방지시스템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덜컥 샀다가 나중에 매각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을 상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재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할 때 철저하게 확인해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직무대리 신종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매년 시유재산 관리를 계속 구와 협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정밀조사를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종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재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6.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동율·김제리·박진형·서영진·신원철·우형찬·유광상·장우윤·최판술·황준환 의원 찬성)

(14시 1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교통위원회 소속이신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수당지급 근거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명확히 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공공데이터의 정의 규정 중 정

보의 개념을 상위법령에 일치시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고 있는바,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과 일치하여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적 집행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정보의 유형이 각각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을 중앙정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제1호는 시장이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ㆍ제공 시 중복ㆍ유사투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민간 공공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민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에서 시민들의 정보접근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개발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유사ㆍ중복투자에 대한 판단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태조사에 따라 개선ㆍ시정 권고 등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기획관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6항은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기능강화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부적이고 세부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정보기획관 정헌재입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67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하는 것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7.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정보기획관 정헌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8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은 첨단 ICT 기술 시정 적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및 지능형 시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세입예산은 90억 1,400만 원으로 2017년도 23억 5,400만 원 대비 282.9%인 6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업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75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8,300만 원, 보조금수입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보기획관 세출예산은 893억 7,20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874억 1,400만 원 대비 2.2%인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업비 68억 원,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비 62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9.1%인 885억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9%인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1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보기획관의 정책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가 187억 1,600만 원,

둘째,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분야가 75억 9,800만 원,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가 50억 6,400만 원,

넷째 GIS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서울 전략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분야가 35억 7,400만 원,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분야가 180억 5,900만 원,

여섯째,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분야가 355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는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정 적용을 확대하여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시민서비스 및 소통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 지원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으로

스마트시티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업 75억 100만 원,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49억 2,200만 원,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사업 11억 7,900만 원,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187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분야는 통계데이터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ㆍ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양질의 행정데이터 개방확대를 통해 시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혁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활용사업에 13억 4,600만 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사업에 12억 2,500만 원,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9억 8,700만 원,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사업에 8억 4,300만 원 등으로 총 75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해 내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사업 16억 8,4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 16억 8,000만 원, 서울특별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5억 9,000만 원 등으로 총 50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GIS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서울 전략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공간정보체계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로 신뢰도를 향상하고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자료 공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1 대 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14억 5,000만 원, 서울형 지도태깅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확산사업 2억 8,300만 원, 실시간 공중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에 2억 200만 원 등으로 총 35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분야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통신망 등 각종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한 종합정보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사업에 38억 2,400만 원,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사업에 27억 2,000만 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사업에 19억 5,6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사업에 12억 800만 원 등으로 총 180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장비교체ㆍ보강을 통해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화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시민과 함께 나누는 정보복지 실현 사업들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 116억 9,1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58억 1,700만 원,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에 122억 4,100만 원,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10억 9,800만 원 등으로 총 35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기획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2.9% 증액된 90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세입은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수입 관련 건물 운영수입의 시 세입조치에 의한 건물 관리ㆍ운영 수입금, CCTV 설치사업 관련 CCTV 설치의 낙찰차액에 따른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의한 과태료 등입니다. 자세한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정보의 위조ㆍ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IT사업분야 관련사업은 인력과 하드웨어가 설치되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지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나 검증은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큰 예산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인 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행정분야에 접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기술적 검증과 함께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사업의 경우 민간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정혁신 도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술적 검증과 행정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엠보팅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21.7% 증액한 2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엠보팅의 경우 투표주제별로 응답자 수가 천차만별로서 응답률이 저조한 주제의 경우에 신뢰성이 없으며, 다량의 전화번호를 통해 중복투표를 할 경우 이를 방지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엠보팅의 무분별한 남발로 행정 신뢰가 의심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 증액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엠보팅은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서울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나 공무원들에 대한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바, 서울시민의 의견반영 여부에 대한 함의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8.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매년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문자전송이용료를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문자전송 미전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관련 데이터의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동 사업은 외부업체에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전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예산낭비의 개연성은 없는지 여부와 함께 정보기획관의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및 IT공방 운영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977.7% 증액한 75억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IT공방 운영 민간위탁금으로는 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 지급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위탁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사업으로 IT공방 운영사업을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울산업진흥원에 추가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기획관에 대해 2016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스플렉스센터의 계획, 운영, 관리의 문제점과 임대율 저조에 따른 개선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정보기획관은 임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017년 8월 기준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실률 제고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에스플렉스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은 19개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산업진흥원의 문어발식 운영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와 서울산업진흥원과의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였는바,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보기획관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또한 에스플렉스센터의 건립과정에서 세 차례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건설3사로부터 80억 5,00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정보기획관은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소송패소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적절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다음,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51.8% 증액한 8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 기준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바,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정보기획관의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종합상황실이 아닌 시장실에 2017년 5억 6,000만 원에 이어 2018년에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으로 종전에는 대면보고 방식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시정업무가 개선되어 의사결정 및 시민과 신속한 시정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예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실시간 도시현황으로 제공되는 정보 중 화재ㆍ재난ㆍ사고 등은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ㆍ공개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공개하는 등의 후속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6% 증액한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주목적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및 활용능력을 진단, 분석해 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숙도 측정을 받지만 일반 기관과 달리 공공부문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못 미치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함께 예산 증액 및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세입에서 우리가 자치구에 CCTV 설치 관련 예산을 교부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반환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내년 수입을 잡아놓은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별로 CCTV 설치현황을 우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우리가 올해 총 얼마의 예산을 교부했는데 집행률이 지금쯤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잠시만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김용석(도봉) 위원** 네, 그러세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입니다.

저희가 일반시민참여하고 주민참여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석(도봉) 위원** 몇 개 구예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10개 구에 10억하고 그다음에 8개 구에 또 편성되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총 18개 구예요? 중복되는 데도 있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률은 대략 얼마나 돼요?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예산을 산출할 때는 현재 집행률을 보고 반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집행률이 얼마예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뭐예요? 알고 계신데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들이 집행은 100% 했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2018년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얼마나 와 있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7억 4,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몇 개 구예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7개 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것도 시민참여예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2017년과 2018년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님, 사실 정보기획관은 대개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용석(도봉)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확인했더니 시에서도 특별히 감사 자체가 많지는 않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희 정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말씀하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 네.

○**정보기획관 정헌재** 아시겠지만 저희는 2년에 한 번씩은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고요.

○**김용석(도봉) 위원** 감사원?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에서 나올 때는 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감사관…….

○**정보기획관 정헌재** 정보 관련 전문가들은 아니고 일반 감사관이나 부감사관들이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파트에 대해서 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서울시 보안문제라든가 또는 정보화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시스템은 지금 없는 것 아닌가요, 제3자적 입장에

서 봤을 때?

○**정보기획관 정헌재**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원하고 행안부 전문가들이 와서 수시로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수시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용석(도봉) 위원** 수시로 받고 있다고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보안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아, 그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약간 전산직 공무원이 좀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국정원이나 행안부의 감사실적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좋습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인데요, 시장실에 가봤더니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장님이 터치만 하면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더군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것을 개발하는 데 5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했고 하반기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 5억 5,000?

○**정보기획관 정헌재** 아닙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아닌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1단계가 5억 5,000 되고 2단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 되고요.

○**김용석(도봉) 위원** 2단계는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사용했어요? 2017년 예산이 5억 5,000인데, 그러면 1단계 썼으면 2단계 사업 예산은 어디서 갖다 썼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1단계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2개를 섞어서 통계지도 만드는 것과 정책지도 만드는 사업 가지고 했고, 2단계 사업은 본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무슨 예산으로 얼마가 들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2단계 사업 5억 5,000을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1단계 사업이 도시통계지도 및 정책지도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시장실 구축인데, 다른 분야 사업을 이용해서 5억 3,100만 원,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5억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억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네?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1단계 사업 이후에 가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해 준 예산이 디지털 시장실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닌 것 아니에요? 도시통계지도라면 이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어요?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입니다.

예산변경은 아니고요 도시통계지도와 정책지도라는 부분이 기존에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정보들을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거지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예산심의 받을 때 그 명칭으로 안 받았으면 예산을 전용한 거지요, 아니면 불법으로 사용했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통계지도가 시장실 만들라고 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그러니까 도시통계지

도가 서울시 안에 있는 것 중에 통계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지도 안에 펼치는 것을 도시통계지도라고 해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김용석(도봉)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1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불법이 됐든 아니면 전용이 됐든 갖다 쓴 것 같고, 지금 모니터하고 다 설치돼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2단계 사업은 또 뭐예요, 기획관님?

○**정보기획관 정헌재**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의 일정부분을 저희가 시민공개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실에서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민들한테도 공개하고 각 부서에서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선진적이고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다 외주를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용역 시행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용역 시행을 한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용석(도봉) 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용역사는 똑같은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똑같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계약은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공개입찰을 한 건가요?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공개입찰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공개입찰했어요?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각각 공개입찰한 거예요?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맞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업체는 달라요?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같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어떻게 같지요, 공개입찰했는데?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1단계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 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독립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셔서 그 점수에 근거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여간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맞습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용석(도봉)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예산은 8억 4,300인데 무슨 예산이에요? 전산개발 또 해야 되고, 공공운영비는 뭡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게 1단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공공운영비가 유지관리비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전산개발은 또 해야 돼요, 그러면? 11억이 들어갔는데?

○**정보기획관 정헌재** 아무래도 데이터 추가 보완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종의 UN 산하기구인 OGP라는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의견을 주는 게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비용을 더 추가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전산개발이 16억 정도 든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었나요?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용석(도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 위원** 먼저 엠보팅(mVoting)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2015년…….

○**조규영 위원** 2015년부터?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조규영 위원** 그러면 지금 3개년 운영을 해 보셨네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 3개년 운영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지금 거기 등록 시민이 한 100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만이면 서울시 인구의 한 10분의 1이 거기에 등록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조규영 위원** 이거 100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민 중에서 내가 이 엠보팅 시스템에서 서울의 정책에 투표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100만이라는 거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조규영 위원** 그래서 정책투표, 시민투표, 현장투표에 그때그때 투표를 하시는 인원이 100만이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투표문구를 만들어서, 성안을 해서 올려놓으면 거기에 대한 투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도 있고 시민이 주도해서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표를 진행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아, 그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조규영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엠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 시 몇 개 자치구가 주민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조규영 위원** 네.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런 것도 있고…….

○**조규영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을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구가 있다고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령 시의 복지만족도라든가 문화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할 때 이 엠보팅을 활용해서 하면 뭐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트렌드를 참고해서 정책화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소하게는 어떤 사진전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올해 몇 건이나 이 엠보팅을 하셨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7년 10월까지 정책투표가 696건, 시민투표가 396건입니다.

○**조규영 위원** 아니,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조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주제는 우리 정보기획관실에서 선정을 하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영 위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예컨대 ‘난 내가 어떤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 제안을 거기서 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엠보팅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주제에 대해서?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조규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정보기획관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아닙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저희는 일단 플랫폼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영 위원** 아, 플랫폼만 만들어 주고 실제 필요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올해 정책투표와 시민투표를 합쳐서 한 1,000건 정도 됐는데 이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알겠습니다.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요.

○**조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스플렉스센터 건립과정에서 세 차례 설계변경으로 지금 소송 중이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현재 소송 중입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이게 설계가 주요하게 세 번이 왜 변경됐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분으로 사용할 면적을 임대부분으로 확대시키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아, 공공에서 쓸 것을 임대로 확대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늦췄고, 그래서 지금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된 거네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조규영 위원** 이게 공공에서 썼으면 더 좋을 뻔 했겠어요. 이것 임대로 넘어가서 분양도 안 되고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청구비용도 줘야 되고 이래저래 손해네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아니,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조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지금 소송을 기조실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보조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규영 위원** 보통 일반적ㆍ보편적으로 이런 소송은 어떻다 그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런데 기간이 늘어짐에 따라서 간접비가 얼마냐 그것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는 그것을 많이 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각 공사별로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간접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액수를 줄이려는 입장이고 입장차가 그렇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대금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얼마를 줄 것인지…….

○**정보기획관 정헌재** 간접비에 대한 인정부분이 핵심입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에스플렉스센터 건립은 사실은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지었을 텐데, 그것 아닌가요? 우리가 민간한테 임대하려고 이것 지은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 들여서?

○**정보기획관 정헌재**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이 됐는데 일단 이게 다 변경결정이 돼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공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여기 위원님들도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87.7%까지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한 6개만 남았는데 저희가 임대율을 연말까지는 90%로 높이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적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동시에 공적사명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에스플렉스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양자가 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많은, 이것 건립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민간한테 임대하려고 건립한 건 아닌데, 뭔가 특정한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처음에는 지었을 텐데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임대공간을 넓히고, 그래서 또 그때 그 임대수요가 적절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이 청구비용은 비용대로 내야 되고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의사결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하여튼 잘 대응하십시오.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런데 임대를 저희가 영원히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임대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적인 수요가 있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잘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우리가 흔히 예산낭비를 지적할 때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시장실, 이것이 이제 3단계 하면 전산개발비는 끝나는 겁니까? 또 들어갑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3단계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 위원** 마지막이 되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조규영 위원** 그다음부터는 계속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유지보수비가 공공운영비로 잡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일정비율 책정이 될 겁니다.

○**조규영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이 보실 때 이것의 가장 큰 효과가 뭐예요,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정보기획관 정헌재** 여기에 지금 현재 연결돼 있는 게 한 167개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여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표출이 되고, 그다음에 영상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을 시민들의 안전, 현장 지휘 이런 쪽에 활용을 한다는 면에서…….

○**조규영 위원** 그것 누가 확인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지금 보는 것은 시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167개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서 3개년에 걸쳐서 16억을 들여서 전산을 개발하고 계시는 거군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위원님, 이것은 현재 시장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공유하고…….

○**조규영 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공유가 돼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공개용 버전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개하고, 또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도 이것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행정 각 실ㆍ국에서는요,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들 내지 요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기능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런데 한 개 시스템에서 어떤 맞춤형 형태로 자기가 필요한 것 위주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조규영 위원** 처음에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은? 시장님이 이것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이렇게 공공정책을 만들 때는 시장님의 뜻도 있지만 또 각 실ㆍ국ㆍ본부의…….

○**조규영 위원** 저는 시장님이 하루 일정 중에서 167개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얼마큼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될 정보들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시장님을 위한 건데 시장님이 저는 이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는지, 하루에 몇 분이나 확인을 하시는지, 한 10분 활용하실까요, 5분 하실까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우리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네.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지금 한 분이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계시는데요. 계속 확인할 때마다 보면 시장님이,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하여튼 꽤 많은 부분을 체크나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조규영 위원** 그런데 전산개발비로 16억이 들고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가 들겠네요?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구축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님 혼자 쓰시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시민시장실을 지향하게 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불용률이 있어요. 그렇지요? 불용률이…….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순자 위원** 매년 있는 건데 불용률을 없앨 수는 없나요? 문자전송이용료로 1억 4,5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미전송건수가 굉장히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순자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러니까 미전송이 되는 원인이 두 부분인데요. 첫째는 전화번호 입력이 안 돼 가지고 될 수가 있고, 받는 쪽에서 음영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낼 때의 문제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전송이 안 되면 보내는 데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이순자 위원**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재발송하는 겁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재발송되니까…….

○**이순자 위원** 그러면 보내고 얼마 있다가 이게 미전송됐다는 게 뜨지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바로 뜹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바로 또 보내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음영지역을 벗어나면 바로 보낸다는데요. 그러니까 미전송됐다는 사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내는 데서 다시…….

○**이순자 위원** 미전송됐을 때 몇 회까지 보내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이 좀…….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입니다.

음영지역에 있어서 발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책임지고 우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음영지역에 들어가서 발신이 안 되게 되면 음영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발신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계속 갈 때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몇 회까지 가고 나서 하고 다른 걸 또 한다든가 이래야지…….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그건 2회까지 합니다.

○**이순자 위원** 2회까지?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네. 그런데 음영지역을 벗어나면 통신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네.

○**이순자 위원** 그리고 보면 그것도 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서도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보내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그런 경우는 발신이 돼서 제대로 들어갔는데 확인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 번호를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아니라고 하거나 하면 이게 확인이 되는데 안 그런…….

○**이순자 위원** 그렇게 해야만 확인이 되나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네. 그게 보냈는데 안 받았다는 확인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도…….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보니까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숱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즈음 보면 전화를 수시로 많이 바꾸잖아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미전송건수가 솔직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

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보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도 전화를 쓰다보면 본의 아니게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요즘 기본적으로 핸드폰 2년이나 많이 써야 3년이잖아요. 그런데 발송하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전화번호가 바뀌면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것을 어디 가서 클릭을 하십시오.'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을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그래서 저희가 미전송되면 요금이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요금이 상당히 쌉니다. 한 6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전송료가 없으니까?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이게 문구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순자 위원** 그러면 예산 조금 줘도 되겠네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아니요,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순자 위원** 적게, 이것보다 훨씬 적게…….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지금 전송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이순자 위원** 어쨌든 미전송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보기획관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CCTV 설치 사업에서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 전년 대비 90.2%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올해 자치구로 CCTV 설치 예산이 내려갔는데 사업 발주하고 집행이 되면 그게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산해서 남는 것은 저희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순자 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시비로 나갔는데…….

○**정보기획관 정헌재** 시비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아, 보조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다 못 쓴 것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 것은 아닌가 보지요? 이게 CCTV를 설치할 때 1대당 기본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런데 입찰을 봐서 그 낙찰차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입찰을 자치구에서 그냥 보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순자 위원** 서울시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러니까 자치구에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집행은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자치구에서 하는데 거기서 남는 게 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낙찰차액 이런 것은 남을 수가 있지요.

○**이순자 위원** 저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저는 1대당 얼마이기 때문에 만약에 1대에 4,000만 원이면 10대를 하면 4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지요. 입찰을 해서 할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당연히 있는 게 정상이지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다 다르겠네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이 CCTV 매입하는 형태가 제3자 단가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입찰을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왜 굳이 자치구에다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자치구의 관제센터별로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아니, 가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 선정해 가지고.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것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각…….

○**이순자 위원** 아니, 내 말은 자치구에서 만약에 발

주를 하려고 하면 이 CCTV를 설치할 곳을 분명히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순자 위원** 정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돈에서 이 부분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었을 때 만약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는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액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돈으로 산출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각 자치구별로 25개 관제센터가 있고, 필요한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에서 발주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보면서 자치구 수에 맞춘 예산이 지금 불필요하게 반환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기획관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CCTV 예산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자치구로 나가는데 이것을 못 쓰고 온다는 게 좀 약간 저희들도 문제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것은 자치구가 이 돈을 못 쓰고 저희한테 반환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해서…….

○**이순자 위원** 보통 지금 반환되는 게 몇 % 정도 되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것은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한 3% 정도 이렇게 반환, 그러니까…….

○**이순자 위원** 지금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순자 위원** 안전환경 사업비 등 전체 사업비의 3%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자치구와 상의를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을 한다? 그러면 이 반환금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세외수입 조치합니다.

○**이순자 위원** 아, 또 그렇게 받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러니까 시 예산이었기 때문에 못 쓴 돈은 저희가 반환받아서 수입조치합니다.

○**이순자 위원** 어쨌든 매년 평균 3%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것은 한번 자치구와 고민해서 비율을 좀, 없을 수는 없고요 좀 낮추는…….

○**이순자 위원** 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정보기획관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 이순자 위원 질의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잔액 반납을 하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지금 사업별 설명서 386쪽 뒤에 있어요, 세입이 제일 뒤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세입을 또 제일 뒤에다 해놨어?

거기 가운데 보면 국고보조금 있지요, 제일 위에?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9억 9,869만 1,000원?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2016년도에 썼다가 남은 돈을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아니요,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돈이니까…….

○**위원장 김창수** 국가에서 받아다가…….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2017년에 12억 받았는데 내년에는 9억 9,800만 원 받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받는다는 겁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284만 2,000원, 그게 잔액 남은 거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정보기획관 정헌재**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정보기기 사주는 게 남아서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것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세입내역을 죽 보면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중에서 금년도 284만 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보면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용 잔액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남을 텐데?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희가 국고 받는 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김창수** 우리 국고보조금 받은 것은 반납하지요, 국가로?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 세출은 어디다 편성해 놨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세출은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김창수** 각 부서별로?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부서별로 하나 찾아내 보세요. 찾지를 못하겠어.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따가, 그것이 각 부서별로 잡혀있는 것 같으니까 부서마다 국고보조금 반납 세출예산을 죽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편성하고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정보정책 총괄자문가 운영 이런 사업이 있네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 정보정책 총괄자문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도대체 역할이 뭡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아무래도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다 블록체인이다, 그다음에 챗봇이다 빅데이터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는 여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가적인 도움을 좀 받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총괄전문가를 두는 것인데 비상근 근무입니다. 그런데 총괄자문가를 두어서 저희 정보기획관 업무에 꾸준한 자문을 받으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정책자문 이런 것이라면 정보화전략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심의기구이고 자문기구인데 그 정보화전략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굳이 이런 총괄자문가가 필요할까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은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체에 참석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옆에서 저도 보좌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보기획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명희 위원** 여기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디지털 정책 및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총괄 기획ㆍ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총괄 기획ㆍ조정하는 것은 정보기획관이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제가 합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정보기획관이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굳이 총괄자문가를 두게 하는 것이 시장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정보기획관님의 요구입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제가 저희 국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명희 위원** 필요하다면 자신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정보기획관 인원 가지고는 해낼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자신이 없다기보다도 만약에 적정한 분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저도 여기 와서 많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지만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적정한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적정한 분이 있다면 오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 어떤 소재를 정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정보기획관에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그러면 시장의 방침으로 허가를 받으셨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희가 방침은 받았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 정보기획 총괄자문가라는 게 참 모호한 위치예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월 80시간 이내의 비상근근무고요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이 있는데요 이 지침에 맞게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저희가 지난번에 혁신기획관에서도 협치자문관이라는 것을 한번 둔 적이 있었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랬을 때 그 협치자문관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공무원을 이렇게 진두지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협치자문관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혁신기획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보기획관이 이 업무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전략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메울 생각을 해야지 이 총괄자문가가 와가지고는 이분의 근무형태나 근무내용을 봐도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책임지는 일이 없어요.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사회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융합이 어렵고, 한번 우리가 협치자문관의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위치에 자문가를 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보기획관께서 이 총괄자문가 역할을 그 위치에서 충분히 해내시는 것이 더 정보기획관의 역할이시고 별도의 자문가를 모셔오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자문가를 둠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사항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문가를 뽑게 된다면 어떤 공무원의 옥상옥 그런 체제가 아니라, 또 저희 분야는 협치자문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워낙 기술이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전략위원회 위원님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회의 때 그야말로 자문해 주시는 거고, 이분이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약간 책임성면에서는 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이명희 위원** 누가 올 사람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물색을 해 봐야 됩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 물색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사례에서 봤던 그런 행정의 전철을 또 다시 밟을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업무는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를 들어서 올빼미버스도…….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희가 2013년에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러분들이 해서 성공한 빅데이터 연구분석 사례인데……. 그래서 서울시정의 그런 빅데이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서울대연구소가 들어왔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현기 위원** 그것 개관할 때 오셨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는 그때 여기에 안 있어서요.

○**김현기 위원** 안 계셨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현기 위원**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무도 안 왔어요.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빅데이터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그 현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시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빅데이터연구소가 도시문제 뭐 이런,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해요. 쉽게 말해 빅데이터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진흥본부고 그 경제진흥본부를 의회가 감독하는 곳은 기획경제위원회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해부족으로 만날 예산 삭감하자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김현기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그 연구소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업무협조체계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소를 포함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운영하는 관련 예산은 경제진흥본부 소관이고 그 본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인데 거기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기획관님의 의견이 뭐냐고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좁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그 디지털재단에 대한 소관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는 다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김현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분에게 감사결과 조치요구가 나갈 거예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아마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났는데 어느 과장도 나한테 와서 이 문제를 설명하거나 보고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것을 지적했을까요? 예산심의를 앞두고 좀 노력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 아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오불관언식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 예산도 지금 시정의 다른 분야 예산이 늘다보니까 많이 좀 깎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현기 위원** 아니, 알아요. 내가 한번 다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관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와주는 노력은 했어야지. 지적하고요.

다음에 SAP 얘기는 들어봤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현기 위원** 세계적인 솔루션 회사지요. 그게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또 입주를 했습니다. 그 입주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엄청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SAP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군인공제회관에. 직원이 600명이나 되더라요. 있는데 그 SAP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또 입점을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그 SAP 활용계획이 여러분, 있어요?

참 답답해요. 서울시의 행정조직, 구조가 참으로 황당하게 돼 있어요. 관련 있는 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관여도 할 수 없고, 잘못된 조직 아닌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지금 지적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김현기 위원** 알면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그럼 내가 좀 도와줄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현기 위원** 정보기획관 업무 여러분들 와서 수도 없이 보고하는데요. 방금 제가 지적한, 지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제안한 이 2개 기관을 잘 활용해야 정보기획관 업무가 날로 확장ㆍ확대되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헌재 기획관님을 제가 의원 시작한 12년 전부터 잘 알고 있어요, 능력을. 그런데 요새는 뭐라 그럴까 침체기라 그럴까, 좀 실력발휘 하세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시고,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협치자문관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20분간 신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서울시청의 계선조직을 무력

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자문관이 비상근인데 계선조직, 즉 부서장을 총괄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 위촉을 한 서울혁신기획관은 그 밑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게 지금까지 서울시청이 소위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적나라한 실태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이 지적을 했고 결국 그분은 위촉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김현기 위원 협치자문관이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말 그대로 자문관은 자문만 하셔야지 자문관이 계선조직의 장을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방금 이명희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예산에 편성된 그 역할도 정보기획관님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보기획관님을 옹색하게 만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나는 하리라고 봐요. 따라서 그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우려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관이니까 자문에 포커싱이 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 자문관을 정보기획관님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위촉을 하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청의 온갖 자문관, MP 등등의 명칭을 붙여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했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거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현존하는 자문관 중에 몇 분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지금 현존하는 조직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현존하는 조직 내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자문관은 운영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을 위해서 올해는 한 7억 원 미만인데 내년 75억 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SBA에서 운영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썼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예산총계주의를 적용하자, 그래서 수입은 쓰지 말고 다 시 세입으로 하고 대신에 운영수입으로 썼는데 그 운영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다 주는 겁니다.

○박호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방식만 다를 뿐이지 실제 내용은 다 똑같단 얘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것을 시세 수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규모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것을 안 잡아서 7억 원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는 한 75억 정도로 올라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 궁금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이 부분은 하나가 구조개편되면서 한쪽 부서가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보여요. 맞습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것은 아니고요.

○박호근 위원 서울사이버안전센터, 2017년도에는 12억 8,900이었는데 내년에는 27억 2,000만 원…….

○정보기획관 정헌재 위원님, 그게 예산체계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요. 사이버안전센터 유지예산이 다른 데 들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박호근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쪽 부서에서 두 가지를 했었는데 둘 중 한 가지가 이쪽 사이버안전센터 쪽으로 합쳐진 거네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예산체계가 바뀐 건데요.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정보보호체계라는 그 예산체계 속에 스마트 정보보호체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항목에 있던 예산을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운영비용으로 돌린 겁니다.

○**박호근 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17억 6,000만 원 잡혀 있던 게 1억 5,500으로 급감하고 예산이 사이버안전센터로 옮겨왔다 이런 얘기군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게 이유입니다.

○**박호근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클라우드센터 인프라구축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 60억 5,3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22억 4,100만 원, 두 배 이상 뛰었단 말이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클라우드센터는 1단계、2단계、3단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올해 2단계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는 마지막 단계 사업인데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50대가 이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마지막 사업인데 도시교통본부 전산실에 34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커지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배로 뛴 겁니다.

○**박호근 위원** 이전을 하는데 뭐가 분량이 두 배로 뜁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이전을 하게 되면 하드웨도도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고 대수가 많기 때문에…….

○**박호근 위원** 아, 신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러니까 클라우드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지금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전산실이 다 클라우드센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게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실을 그쪽으로 이전한 거고, 그런데 그게 50대였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게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클라우드센터요.

○**박호근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어디에 있던 것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러니까 각 본부별로 산재되어 있는 전산실이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있는 클라우드센터로 다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전을 했고 내년에는 도시교통본부 전산실이 이전을 하는데 그 물량이 더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예산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박호근 위원** 이전하면서 노후화된 기구들 교체하면서 신제품 사고 이러느라고 늘어난단 얘기인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서버니 하드웨어, 그다음에 운영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다 매입하는…….

○**박호근 위원** 에스플렉스센터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이 그렇게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보니까 정보통신、정보보호 장비 도입, 운영소프트웨어 도입, 쉽게 말하면 신제품 산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전하면서?

○**정보기획관 정헌재** 이전대상 장비 대수가 증가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박호근 위원** 342대네요, 교통정보과 등 4개 부서에.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장비 342대 이전 및 노후장비 교체예요.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지금 에스플렉스센터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SBA에서. 네, 맞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산업진흥원이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맞습니다.

○**박호근 위원** 여기에 IT공방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할 계획이신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IT공방은 저희 전산시스템 같으면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변경될 소지는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에스플렉스센터의 공실률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지금 거기가 87.2% 임대가 나갔기 때문에요 임대율이…….

○**박호근 위원** 87%?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대략 한 13% 미만 정도가 여전히 공실인 거네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6개 정도 방이 비어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 두 번인가 갔었어요, 처음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자 이래서. 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당시 아마 정보기획관 소속 부서에서는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갔었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아마 너무 공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난감했던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두 번을 나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에스플렉스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데가 말씀하신 대로 서울산업진흥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맞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개수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19개나 돼요, 19개.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은 대략 인력이 얼마 정도 되는 기관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잠깐 코멘트해 주시지요, 정보기획관님한테.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것 빨리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 올해 또 이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래서 내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이 한 기관에서 19개 기관씩 이렇게 위탁업무를 하면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가지 일을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물론 여기…….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지금?

○**정보기획관 정헌재** 정규직 200명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 200명?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런데 19개 기관을 이렇게 제대로 잘할까? 200명이면, 서울시 관련 부서만 19개가 지금 위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위원님, 저희가 1년 연장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SBA도 지금 위탁을 이분화해서 자기네들은 문화적인 시설만 위탁을 받고 건물 일반적인 관리는 다른 곳에 맡겨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갑자기 바꾸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1년간 일단 SBA에서 더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한번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우리가 좀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1년 정도만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호근 위원** 지금 SBA의 정규직이 2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각 부서, 환경정책과, 우리 정보기획담당관, 경제정책과 등등해서 19개 위탁사업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19개를 계산하기 쉽게 20개 사업이라고 하면 200명이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렇지요? 나누어보면 한 프로젝트당 한 10명, 맞습니까? 10 대 1이니까, 그렇지요? 이거 제대로 포커싱 할 수 있을까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비가 나가면 정규직이 물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채용할 수가 있고 2년 내 단기계약직도 채용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운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이 간다고 해서 꼭 200명이 이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채용 형태에 맞게 이렇게 인원증가가 됩니다. 지금 이 정규직 200명이라는 것은 정말 SBA의 정규직원인 것이고 그 외에…….

○**박호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정규직 갖고 커버가 안 되면 비정규직, 한시직 쓰는 거지요. 그것을 모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이 책임을 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위탁사무에서 문제가 있으면 SBA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책임 있는 사람을 해당 프로젝트에 위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임명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SBA에서 맡은 위탁업무에만 전력할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업무에만 전력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위탁업무는 위탁업무대로 하고 또 자기들도 다른 업무에 충분히 신경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하니까 과연 이 에스플렉스 관리기관이 민간이 좋은지, 아니면 공공에서 SBA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의 어떤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래요. 찾아봐 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을 분산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해도, 예전에 통솔의 원칙인가,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 적게는 4, 많게는 7,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기관이 어쨌든 19개를 맡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초점이 하나일 때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거지, 맞지요? 초점이 여러 개면 빛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태양 빛을 쏘여도 종이 한 장 못 태웁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볼록렌즈, 오목렌즈 배웠지 않습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열을 한곳으로 모으려면 한곳에 포커싱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건립과정에서 세 차례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한 1,500일 정도, 정확히 말하면 1,475일 딜레이됐어요.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랬더니 건설 3사로부터 80억 5,000만 원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래서 참 적지 않은 우리 시민 세금을 어찌 보면 낭비하는 꼴이 생기게 됐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치밀하고 더 꼼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동구 지역현안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데 조금만 더 한 10년 뒤를 넘겨다보면, 저는 강동구 일자산 보훈병원 옆 출입구 문제 가지고 40분 동안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들 정책 결정하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0년 정도만 더 미래를 내다보면 플랫폼,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위치를 충분히 이쪽으로 한 200m 더 끌고 올 수 있었는데 당시 생각은 가칭 보훈병원역이 9호선 종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보훈병원역에서 다시 연장을 해서 강일동을 통해서 하남까지 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결정한 게 지금 보면 속칭 사람들이 말하는 기형적인 짝퉁이 돼버렸어요, 짝퉁. 한쪽으로 이렇게 정거장이 쏠려 있다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딱 위치를 봤을 때 보훈병원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딱 정거장이 앉았으면 보훈병원역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또 반대편의 왼쪽과 오른쪽에 출구를 내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한 200m 이쪽으로 쏠려 가지고 한쪽으로 편포되어 있어요, 전철 플랫폼이.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 에스플렉스센터 세 차례 설계변경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사업체에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자, 하여튼…….

○**정보기획관 정헌재** 잘 대응해서 좌우간 저희가 승소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 어찌 보면 저희야 시의원 하다가 다음에 떨어지면 못 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서 10년만 미래를 내다보면 그때 그 돈을 안 써도 됐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 최소화되게,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요. 그

런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지역의 전철역도 지금 한쪽으로, 사람 생김새로 말하면 반듯하게 생겨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야 돼요, 그 동네는.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따졌더라면, 전철역이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 계속 갈 텐데 꾸준하게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많게는 100년 이상 불편을 안고 살게 생겼어요. 참 딱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도 지도를 딱 펴놓고 '야, 여기다 전철역 놓는다면 어디다 놓으면 좋겠니?' 초등학생 10명 중에 9명은 제대로 그릴 거예요, 전철역 여기에 내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여기 CCTV, 시민참여예산으로 잡아놨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별 설명서 280쪽, 5개 구청에서 7억 4,300만 원, 또 2개 구청 용산ㆍ동작 해 가지고 총 7개 구청에서 7억 4,300만 원을 했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또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274쪽에 보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올해 예산을 630만 원 잡았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올해는 국비가 없습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국비가 없습니다. 올해 국비가 없고 내년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14년, ′15년, ′16년, ′17년까지는 국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CCTV에 거의 600만 원이라면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600만 원 가지고 몇 대 합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게 설치비용이 아니라 자치구 실무자들하고 CCTV를 설치하려면 적정장소도 찾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630만 원 가지고는 설치는 거의 안 되는 거고 CCTV 한 대가 거의 2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책자 제작이라든지 평가위원 수당해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런 건데, 거의 안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번에 시민참여예산 안 한 데는 아예 없네, 이제.

○**정보기획관 정헌재** 시민참여예산이 없는 구는 지금 뭐…….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비 받아다가 CCTV 설치해 주는 것이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치구별로 적정 CCTV를 파악을 했는데 지금 한 3만 4,00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방범용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만 1,000대 정도 더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도 저희가 뽑아보니까 1,000억 이상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국비, 시비, 자치구비까지 포함해서 4,196대가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 적정 추가 설치대수로 나오는데, 4만 1,000대요. 이것에 대해서 재원분담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상의 장기 플랜으로 가서, 물론 이게 실측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4만 1,000대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자치구와 협의해서 뽑은 숫자지만 좀 거품이 있다고 보고 이것보다 약간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장기 플랜을 갖고 국비, 시비, 자치구비 이런 분담비율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이 CCTV 설치를 시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구는 되고, 우리 기획관 소관은 아니겠지만 참여 안 한 데는 설치가 안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7억 4,300만 원을 그냥 나눠버리면 안 될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고, 예산은 우리가 확정하는 거지 주민참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구는 1억 5,300, 동작도 2억, 그런 반면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와이파이 설치 있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와이파이 설치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했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올해는 구로구만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구로구만 올라왔으니까 50개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 소관에서 와이파이 설치 예산이…….

○**정보기획관 정헌재**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설치비용…….

○**정보기획관 정헌재** 설치비용으로 5억 한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예산 잡힌 것은 2018년에 12억 정도 되지요, 다 합치면?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중에 설치에 관계된 예산이 한 5억 6,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몇 개나 더 설치할 수 있어요, 5억 얼마 가지고?

○**정보기획관 정헌재** 지금 한 350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설치는 지금 이동통신 3사와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앞에 25개 자치구를 보니까 이해는 돼요. 사람이 많이 다중으로 모이는 곳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변두리 구라든지 다중이 안 모이는 데는 설치가 좀 부족하고, 위치색깔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 있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보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더라 이거야. 아니, 설치하는 거야 서울시가 요점요점 지점에 공평하게 설치해 줘야지, 그것 설치해 줘야 사람도 또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데는 공평하게 들어가야지 무슨 사람이 많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해 놓고 저기 도봉 창동역 같은 데는 거의 없고, 마포 홍대 앞 같은 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설치하고. 처음부터 실사할 때 서울시를 놓고 공평하게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사람 수요가 많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

○**정보기획관 정헌재**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자치구별로 설치현황이 죽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고려해서 그런 형평성 차원도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통신환경이 또 안 되면 이게 설치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알아요.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 이동통신 3사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는데…….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희 자가 망…….

○**위원장 김창수** 서울시 공공에서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설치하는 것은, 민간은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공공은 공익을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면 공공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공평하게 없는 쪽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거예요. 있는 쪽만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강남 쪽에 집중돼 있어요. 이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강북은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설치한 색깔을 보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설치할 때 조율을 좀 하라는 거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왜 그렇게, 빅데이터 좋지요. 그것 하면 당연히 사람 많은 데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것은 민간부분 같으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해도 좋겠지만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니까 공공 쪽에서는 좀 없는 분들도,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으면 통신료가 어쨌든 간에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말씀하신 대로 무료 와이파이니까 통신복지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돼.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CCTV는 많이 설치해도 문제가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집 앞에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문제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하는 구만 그냥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설치 안 해 주고 이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한번 보겠어요.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2017년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2017년에 60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49억 이렇게 됐네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명희 위원**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도 금년에 새롭게 실증지역을 확대할 수 있으신 건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실증지역 신규 목표가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통신시설을 갖추고 센서 구매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와이파이가 깔린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SKT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비용 망인데 로라망이라고 그것을 하면 실증단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명희 위원** 여기 보니까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이 ′16년, ′17년 실증지역별 조성 평균 단가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이 감액됐다, 그러면 ′16년, ′17년도보다 더 싸게 ′18년도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너무 과대 책정됐던 건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예산을 보면 못 써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월도 많이 되고 이런 예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이게 너무나 많으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품을 걷어내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내년도 저희 방향입니다.

○**이명희 위원** 정보기획관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조성단가가 예전에는 많이 확대돼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액해도 할 수 있다고 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가네요. 무조건 부풀려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만큼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지요, 지금?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서울IoT센터를 민간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나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것도 SBA입니다.

○**이명희 위원** SBA에?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명희 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2019년까지입니다.

○**이명희 위원** 2019년이면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는데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3년이니까 ′16년에 시작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3년.

○**이명희 위원** 3년간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명희 위원** 위탁 사무가 뭐예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일단 저희가 사물인터넷 실증을 하기 위해서 실증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증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실증을 했을 때 그 실증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 IoT 확대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기관을 지금…….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SBA에서 직접 이것을 실증지역에 나가서 시설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런 건 기업들이 하고요.

○**이명희 위원** 그것은 기업에다 주는 거고 그런 기업을 선정한다든지 발굴하고 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비가 18억이나 돼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만 13억인데 그렇게 발굴하고 자문하고 하는 사업비치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게 항목별로 있는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 직원이 4명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이명희 위원** 인건비, 운영비 이것은…….

○**정보기획관 정헌재**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이명희 위원** 여기서 직접적으로 실증지역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시설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13억이라는 사업비가 1년에 단지 자문하고 개발하고 하는 데 들어간다는 게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이 13억 안에는 거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스페이스라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D 프린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이거 운영비로 한 5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공간은 뭐냐 하면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실증할 수 있는 제품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계측도 하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데 5억이 들고, 그다음에 센터 홍보하고 사물인터넷 마케팅 하는 데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증기업 서비스 제작비용으로 또 5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업들 홍보ㆍ마케팅 지원하는 데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한곳에 예산이 집중되어 가지고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희 위원** 민간위탁금의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지금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물품 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모든 지역의 사물인터넷 도시를 조성하는 비용은 별도로 과목이 되어 있어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이명희 위원** 그런데 단지 민간위탁금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어요. 정보정책 총괄자문가 그 기안을 아까 답변에 기획관이 하셨다고 했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기획관께서 이것을 기안해 가지고 결재받았다 했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설치하겠다, 이분을 초빙하겠다 이런…….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그분이 하는 주요업무를 보니까, 기획관께서 본인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정보 업무를 해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많은 지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와서 하는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서울시 디지털정책 및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딩, 블록체인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서울시정 접목방향을 제시하고, 더구나 서울시장 주재 회의 등에서 디지털적인 시각에서 주요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의 첨단 디지털 정책 및 중앙부처와 연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더구나 국내외 도시 및 디지털 기업과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해서 시장이 자문가를 위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이분이 오게 되면 뒤에 앉아 있는 과장들을 다 지휘통솔하게 생겼어, 전반적인 업무를. 왜 그러냐 하면 기획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니까.

또 정보기획관까지도 이분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야 될 텐데 이것을 본인이 기안했다?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거기서 총괄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총괄에 대한 자문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총괄을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좀 잘못된 사례도 있지만 이게 또 자문관이라는 게 잘…….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저는 그렇게 이것을 따로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분을 아까 기획관께서 기안해서 했다고 하니까 공직사회에서 자기 업무를 조금 침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왜 할까,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했나 해서.

○**정보기획관 정헌재** 기안은 물론 저희 실무자가 했고요. 그래서 제가 결재단계에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이 지시했으니까 밑에서 기안하지 기획관이 안 했는데 하겠어요? 만약에 기획관이 지시도 안 했는데 실무자가 기안해서 올라온 것을 중간 결재과정에서 결재만 했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기획관의 허락도 없이 밑에서 멋대로 막 기안해서, 더구나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이런 일을 시킬까, 이런 게 참 의아심이 듭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도와주시면 잘 운영해서 정말 위원님들의 칭찬 받는 자문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8.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

(16시 11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정보기획관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스플렉스센터) 재계약 추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센터 현황과 그간의 추진경과는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적극 유치로 입주율이 제고되었습니다. '16년 7월에 55.1%였던 것이 '17년 11월 현재 87.2%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T、미디어、게임 등 주요 위탁시설 운영실적은 e스포츠경기장은 2016년 4월 운영이 시작되었고, 미디어콘텐츠센터, 빅데이터캠퍼스, IT공방은 2016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3페이지 재계약 추진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건물 통합 관리, 임대 유치 관리, 위탁시설 운영, 시설 활성화 사업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재계약 대상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에스플렉스센터는 IT、미디어、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시설、임대관리 및 문화콘텐츠 사업을 통합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사이버안전센터、클라우드센터、교통방송 등 공공청사 입주에 따른 시설관리의 보안성、안정성이 필요한 건물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관리、문화콘텐츠 등 사업의 통합 위탁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개관 후 1년밖에 안 된 건물이므로 건물관리에 대한 안정화 도모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에 SBA와 재계약이 필요、적합하다는 의견이 입주기관대책회의에서 있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위탁기관인 SBA와 통합 재계약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적극적 임대유치를 통한 입주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세입、세출구조의 명확한 분리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7년 12월에 민간위탁 계약심사와 협약서심사, 계약체결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서(민간위탁시설 재계약)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위탁비가 75억이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75억인데, 75억의 세출내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운영비가 67억이에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1억 정도, 시설관리유지비가 36억, 사무실 운영비가 5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가 5명 해 가지고 3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라 해서 우리가 여기 SBA에 하는 이유는 이 앞에 보고할 때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임대마케팅 실력이 좀 부족하다…….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 SBA에다가 위탁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죽.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 마케팅비는 2,000만 원이야. 시민체험프로그램 운영이 3,000만 원, 시설개선비가 2억,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8,400만 원.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이제는 직접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마케팅 비용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다른 데다 공모하는 것이 더 낫겠어. 이 2,000만 원 드는 마케팅을 위해서 좀 실력 있는 SBA에다가 맡기겠다? 인원 채용해서 우리 기획관 소관에 에스플렉스센터 관리운영팀을 팀장 포함 5명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해도 크게 문제 없을 텐데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많은 위탁수수료, 8,400만 원 들어야 되지, 또 공공요금 같은 것은 당연히 내는 것 아닙니까, 세금?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희가 하나 SBA가 하나 민간이 하나 다 돈은 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해 가면서 SBA에다가 하는가. SBA가 진짜 전문적인 실력이 있나 하고 제가 이 앞에도 한번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도 부담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니까 정보기획관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는 보고이고 향후 장기적으로 이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은 없는지, 위탁을 1년씩 연장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아예 전문기관에다가 장기적인 위탁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직접 하든지 해서 에스플렉스센터 운영관리 방법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31억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맞습니다.

○**박호근 위원** 1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최근 1년 지출액 대비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입주율 상승분을 반영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호근 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게 전기세, 수도세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다음에 전화 및 전용회선 요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 교통유발ㆍ환경개선부담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호근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최근 1년 지출액 대비해서 뽑은 겁니다.

○**박호근 위원** 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아무리 17층 건물 또 21층 건물이라고 해도?

하여튼 올해도 이 정도 나갔다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는 또 뭐하는 데 36억 5,0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주로 청소라든지 시설관리용역비로, 71명이 거기 투입되는데요 그게 30억 정도 되고…….

○**박호근 위원** 청사 방호 및 청소 이런 분들입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그리고 주차요원도 있고요 전기, 소방, 기계가 또 23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박호근 위원** 그분들 인건비?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한 5억 9,000만 원 나가는데요 이것은 USB 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비이고 무인경비, 물탱크 청소용역,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법상 법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비용, 그다음에 소모품비, 소규모 유지관리비 뭐 이런 쪽으로 5억 9,400만 원이 책정돼서 전체 3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박호근 위원** 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질의인데 올해도 이 정도 나갔습니까, 그러면?

○**정보기획관 정헌재**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잡고, 시설관리용역비 중에서 청소인력이 4명 증원되었습니다, 입주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호근 위원** 인건비 부분을 보면 5명에 3억 9,131만 원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그러면 얼핏 따져도 5명이면 일인당 연봉개념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SBA 사람들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건?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팀장 한 명과 행정 두 명, 시설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9,1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일인당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물론 사람에 따라 보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박호근 위원** 시설개선비는 2억이 별도로 또 책정이 돼 있고요.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그런데 여기에 순수하게 봉급도 있지만 4대 보험 가입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개념으로 보려면 그것을 빼고 다시 한 번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SBA 하나만 생각하니까 이런 것 같아. 앞으로 공개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공개로.

○**정보기획관 정헌재**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민간으로 가면 저희 관리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 쪽으로는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설공단 정도 있는데 시설공단도 지금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민간에 하면 거기에 크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민간업체를 공개모집해서 하면 시설관리에?

○**정보기획관 정헌재**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있긴 있는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건물에 클라우드센터도 있고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맡기는 게 약간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좌우간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보기획관 정헌재** 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헌재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9. 2018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7분)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 전 직원들은 세출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어 서울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은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을 보장하여 행복하게 성장하고 창의적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도시 서울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만들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초등학교 보안관 배치,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등의 지속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확대ㆍ개편 및 모두의 학교 운영,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을 더욱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혁신 및 개선,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의 생산ㆍ공급ㆍ소비 등 단계별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공공급식을 통해 어른과 아이 모두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 문미란 이사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입니다.

배형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명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백자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94억 3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183억 1,300만 원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0억 2,800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33억 4,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8,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1억 5,0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8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조 3,412억 1,7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조 1,618억 5,600만 원보다 1,79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포함된 최종 예산은 3조 7,517억 1,900만 원보다 4,1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조 9,783억 8,2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조 8,053억 8,500만 원보다 1,72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출금 1조 2,301억 7,0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2,809억 7,2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 4,581억 8,4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90억 5,6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상 전출금은 5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대비 56억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통세의 0.4%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후급식시설 개ㆍ보수 등 9개 학습환경 시설개선비 314억 5,700만 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 9개 학습프로그램 지원비 144억 6,600만 원, 특별교육경비보조금 5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60억 4,000만 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88억 9,0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286억 4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33억 3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시설 조성ㆍ운영 15억 원,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 19억 3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115억 1,800만 원, 융합인재양성교육센터 운영 등 5개 시민참여예산사업 4억 원 등 교육청 전출금을 포함하여 총 25개 사업 3조 9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32억 8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48억 3,2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6억 2,8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추진 6억 3,500만 원, 영어 및 창의마을 지원 3개 사업 18억 200만 원, 시민 학습활동 지원 시스템 개발 등 3개 시민참여예산사업 4억 7,900만 원 등 모두 15개 사업에 12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66억 60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 Net) 구축 지원 25억 9,8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84억 6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36억 3,800만 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49억 3,1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1억 5,500만 원,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14억 1,000만 원,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70억 9,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ㆍ지원 30억 8,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3억 8,700만 원, 청소년 인권이야기 등 6개 주민참여예산 사업 3억 500만 원 등 총 38개 사업에 7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360억 500만 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4억 5,000만 원, 우수 식재료 지원 34억 5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70억 7,400만 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지원 57억 2,100만 원, 모두 13개 사업에 1,64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은 2018년도에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평생교육국의 성인지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많지는 않은데 이게 목적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청소년ㆍ여성들, 쉽게 말하면 청소년 쉼터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 이 안에 여성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합니까? 누가 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요?

○**이순자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시정책에 남녀 성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순자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특별히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순자 위원** 그냥?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사업들 중에 이것은 남녀가 공히 있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이순자 위원** 비율이, 그러면 남녀 비율을 어느 정도에서 그래도…….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거의 50 대 50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성인지 정책을 만들거나 예산 잡을 때 들어가서 회의했던 그런 자료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이거 잡을 때 특별히…….

○**이순자 위원** 회의 안 하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보이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그랬을 때 정말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회의할 때 그냥 우리 생각대로 다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인지 예산을 다시 한 번 좀 꼼꼼히 체크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특별히 어떤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류된 몇 가지 사업만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평생교육 사업도 대부분 다 성인지 관련돼서 그렇게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순자 위원**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 쉼터에 있는 아이들, 성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한 번만 들어보면 정말 그들이 뭘 원하는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번만 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거기에다가 기부금, 그 외 수입으로 해서 53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여기 보면 서울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반환금도 있고 교육정책과 자치단체 시비보조금 반환금, 평생교육과 자치단체 시비보조금 반환금, 청소년정책과 자치단체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반환금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의 경우에 2016년에도 93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산 결과 잔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이 세입이 금년도 결산하면 이 정도 반환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순자 위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결산 결과 3억 7,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됐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이게 명확한 산출기준도 없이 자치구에 불필요한 재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효율성인데요. 자치구에 줘서 집행을 안 한 경우에 저희들한테 반환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ㆍ도비 반환금인데 일단 편성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자체를 자치구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적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더 언밸런스 된 것 같은…….

○**이순자 위원** 그리고 정산 후 반환받은 예산의 비효율적 방안에 대한 개선책도 솔직히 마련되어야 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그냥 받기만 하고, 지금 실제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에 내려갔을 때 반환금이 없도록 평생교육국에서 그분들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3억 7,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다고 하면 이것도 평생교육국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억 7,500만 원은 3% 정산 반납금이 또 돼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은 액수가 또 굉장히 크더라고, 42억 7,500만 원이 되다보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내년도는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이순자 위원** 내년도는 나아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이 예산도 보면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36.2%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자치구에서 반환금으로 들어올지…….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이 공공급식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첫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좀 불용이 예상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 주었는데 자치구에서 못 하는 경우…….

○**이순자 위원** 자치구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거 매칭 사업이지요, 쉽게 말하면? 전액을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운영비에 대해서는 50 대 50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선 하겠다고 얘기하고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31일 현재 36.2%면 굉장히, 어쨌든 자치구의 수요에 맞는 산출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매년마다 그게 증가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것 예산 잡을 때 많이 잡는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적기에 맞게 적게 잡아서, 정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주십시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증액만 해 가지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런 경우겠습니다. 불용하고 반환금이 약간 다르거든요. 불용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남는 경우에 불용인데, 반환금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주었는데 어떤 경우는 낙찰차액이 생겨서 좀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순자 위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고, 낙찰차액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1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환금 들어오고 뭐 하다보면 굉장히 높은 불용률이 생긴단 얘기예요.

제가 또 보니까 평생교육국의 해당 지원 사업비, 민간보조금에서 이런 게 굉장히 전례답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평생교육국에서 지방교육세로 전출하는 금액이 작년 대비 968억 5,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박호근 위원** 올해는 1조 3,613억 3,300여 만 원인데 내년은 1조 4,581억 8,300여 만 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증감됐는지 봤더니 한 96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박호근 위원** 지난번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은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주는 돈이 많다 보니까, 저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드리는 질의예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17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103억 매칭을 했습니다.

○**박호근 위원** 103억이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맞췄습니다.

○**박호근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102억 해 가지고 아마 서울시가 1억을 더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박호근 위원**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억을 별도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하고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 20대 과제 이렇게 하면서 5 대 5로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88억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얼마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금 22개 구청에 각 구청당 5억씩 해 가지고 110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호근 위원** 110억?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저희도 당초 110억 정도 예산을 기조실에 올렸는데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해서 일단은 4억씩 22개, 그래서 88억이 편성된 거거든요.

○**박호근 위원** 그렇지요. 그게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5 대 5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박호근 위원** 작년에 뒤늦게, 우리가 작년 이맘때 평생교육국 예산심의할 때 10억이 온데간데없이 휙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새벽 4시인가 그때 전화 받고 저게 뭔 소리인가 봤더니, 눈은 감기고 엄청 피곤한데 10억을 다시 살려내라는데 도대체 뭔 맥락에서 10억을 살려내란 얘기인가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10억을 우리 서울시에서 또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호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느냐면 연초에 서울시가 92억, 그렇지요? 서울시교육청은 10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상전출금인가 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10억이 차이나게 됐는데 거기에 맞게 사업을 편성했다가 또 나중에 후반기에 10억이 자치구로 한 5,000만 원 내외 정도로 분배가 되다보니까 당혹스러웠던 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획은 다 세워 놨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늦게나마 신경을 써주니까 미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도움이 컸다 이런 평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평생교육국 관련 예산심의 및 의결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원위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맞춰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 도와주시면 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아, 그럼요.

○**박호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역을 죽 봤어요. 결론은 우리 서울시 살림살이가 커지다보니까 25개 자치구로 주게 되는 조정교부금도 상당히 늘어났고, 또 서울시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돈도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968억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1,700억이지요, 1,700억.

○**박호근 위원** 2개 합쳐서?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법정전출금만 1,700억.

○**박호근 위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개 합쳐서 늘어난 재원이?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조례상전출금은 한 50몇 억 줄었지만 법정전출금은 1,700억 이상 늘어났거든요.

○**박호근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게 따지면 거의 1,700억 이상 간 겁니다.

○**박호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다른 사업에서 또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 증액된 사업을 보면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한 8억 6,200여 만 원 늘어났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한 10억 3,300만 원 늘어났고, 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6,000만 원,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에 9억 3,000만 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64억 9,800만 원, 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120억 4,800여 만 원 이렇게 올해 대비 20% 이상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 감소된 부분은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이래서 보니까, 이것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줄인 거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당초 목표는 675개 교로 해서…….

○**박호근 위원** 800개, 초과 달성 했네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800개, 초과 달성했지만 저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금년 수준이지요, 200억을 올렸다가 조례상전출금 100억 원은 확보했고, 일반회계에서 100억 해서 40억 감해서 한 60억 정도, 총 160억을 잡은 상태입니다.

○**박호근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올해는 481억 8,1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90억 5,500만 원으로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요, 391억 2,500만 원 정도.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사전에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우리가 5 대 5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자체 요청이 줄었습니다. 줄고, 저희가 작년에는 고등학교 두 군데, 초등학교 한 군데 해서 482억인데 금년에는 초등학교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기 계약된 금액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잡았던 것 중에 변경된 내용이, 그러니까 학교는 5개인데 변경된 것만 증액해 줬습니다. 그게 3개 학교고요. 나머지 2개 학교도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교육청에서 요청해 가지고…….

○**박호근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91억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박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는데요.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이게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100억, 교육청에서 100억, 200억을 가지고 해 왔던 사업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서울시에서만 작년도에 200억이고…….

○**이명희 위원** 시에서만 200억을 하고?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교육청에서도 한 200억 정도 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 100억은 조례상전출금으로 나가는 거고?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저는 박원순 시장이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이템이 바로 이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사업이었어요. 이 학교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학교와 학부모와 교직원 모

두가 좋아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모든 학교들이 시설의 격차 없이 좋은 화장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이 100억을 60억으로 줄였네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줄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데 지금 이미 학교 화장실이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로 바뀐 학교의 학생들은 상당히 즐거워하지만 상대적으로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이 열악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빈곤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학교 교육시설의 환경이 이렇게 격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늘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또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만족도가 97%입니다, 작년 12월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그다음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의해서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사업을 시작한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276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동에 7억 5,000, 청소년 인생성장지원체계 구축에 5,0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에 5억 이렇게 돼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는 이미 벌이고 있는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이번에…….

○이명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33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3억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민간위탁금으로 5억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건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게 약간 명칭의 혼란이 있는데요. 뒤에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기존에 했던 기존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대안학교가 저희가 44개 있는데 대안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식비를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276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난번 11월 2일 발표했던 희망도시 서울에 포함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1년에 한 1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에 안 다니는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검정고시를 하겠다면 검정고시 지원비를 준다든가, 인턴십 비용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대안교육을 받고 싶다면, 대안교육의 수업료가 연간 한 1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명희 위원 기존에 있는 33억 예산으로 편성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다 있어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희망도시,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정책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하는 청소년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들이 44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 인건비하고 중식비를 주는 사업이고요. 기존 사업입니다.

○이명희 위원 이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도시 서울,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발표했던 5개년계획 중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명희 위원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지향점으로 삼고 청소년 정책을 그쪽으로 강화하겠다 하는 목표로 해서 조

성이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사업,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동 이것 한다고 친화도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동 이것도 지금 21개 시립청소년수련관에다 인원을 배치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찾동이라든지 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을 찾고 현장에서 안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해서 코디네이터를 한 명씩 배치해 가지고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존의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강화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별도로 인원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을 드나드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더 지원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건비를 책정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은둔형 청소년을 찾는 게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많이 하지만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오기가. 그래서 시가 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들을 안내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희망도시 서울 발표할 때 중요한 사업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유사 사업을 고려하셔서 하시고, 이것이 인건비로……. 마을 청소년 코디네이터라 해서 마을과 청소년이 이렇게 지역공동체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이미 마을 사업에서도 마을학교 이런 것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학교고요 은둔형 청소년들은 학교도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런 거점 다리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명희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도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런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줘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이것 없이 그냥 이 청소년 코디네이터를 청소년수련관에 신규 배치하는 데 7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만 사업계획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모두의 학교, 위탁 예산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서윤기 위원** 예산을 잡았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서윤기 위원** 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지난번에 위탁 동의가…….

○**서윤기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위탁금 따로 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아니, 죄송합니다. 모두의 학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출연금 안에 들어 있습니

다.

○**서윤기 위원** 출연금 안에 들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서윤기 위원** 출연금 말고 면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탁비용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모두의 학교 시설에 대한 임차료 말씀입니까?

○**서윤기 위원** 임차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서윤기 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30일 저희 안건에 올라가 있는데요.

○**서윤기 위원** 30일에 면제 안건은 올리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런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서윤기 위원** 설명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동시에 진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놨고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된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서윤기 위원** 동의 안 될까 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도 안전장치를 해 놓은 거지요. 안전장치를 해 놨는데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서윤기 위원** 주용태 국장님!

그래요, 뭔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예산 심의하면서 감안하겠고요.

본 위원이 영어마을, 감사 시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취지를 알 거예요. 관악 영어마을 예산편성, 내년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7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관악이 내년 3월…….

○**서윤기 위원** 3월? 3월 20일?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서윤기 위원** 딱 3월 20일까지만 예산편성 할게요. 그 이후 예산은 다 삭감합니다.

제가 누차 영어마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영어마을과 관련한 대안 제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바로 해 왔어요. 아무튼 3월 이후부터는 예산 삭감합니다. 어떻게 그 영어마을을,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난번에…….

○**서윤기 위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권한은 예산 삭감 권한밖에 없으니까 그 예산 삭감하는 데 제가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윤기 위원** 일단 계약기간은 만료되니까 계약기간 안까지는 제가 확보해 드릴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는 상관없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고, 전임 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주용태 국장님에게도 제가 관악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영어교육과 관련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이것은 공립영어학원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세워보자 이런 제안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시 내부적으로 지금…….

○**서윤기 위원** 알았으니까, 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풍납캠프도 저희들이 창의마을로 바꿨고, 이미 조례 개정해서.

○**서윤기 위원** 다 알겠다니까요. 알겠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계획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평생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의원으로서 예산심의에 삭감 권한이 있으니까 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거예요. 알겠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작년 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라 해서 1억이 잡혔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기로 일단 방침을 세웠고요. 광명시에서는 이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야만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 도시계획 권한은 광명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해 달라 했더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순자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

○**이순자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용역을?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한 1년 됐는데요.

○**이순자 위원** 1년 됐으면 벌써 나왔겠는데, 용역을 뭐 1년 동안 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그러니까 나왔는데, 나와 가지고 광명시에 저희가 두 차례나 그것을 협의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했는데 광명시에서 계속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해 가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해 달라, 다시 해 달라 그래서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준공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좀 실마리가 잡혔거든요.

○**이순자 위원**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으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광명시에서 최근에 정식으로 문서가 온 것은 아니지만 매입의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순자 위원** 아, 그쪽 광명시에서?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그런데 하여튼 자기들도 재정여력이 어려워서 최대한 낮게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순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청소년복지관 운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광명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근로청소년 이것은 다 끝났고요 유지관리하기 위한…….

○**이순자 위원** 유지관리 위해서?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그것만 지금 해놨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쭐게요. 저는 예산 보다가 의아한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주었다 뺏으면……. 만약에 국장님 같으면, 내가 보너스를 항상, 예를 들자면 매년 연말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달에 안 받았어요. 12월에 올해는 못 줘 그랬을 때는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면 안 되지요.

○**이순자 위원** 안 되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보다 보면 의아한 것도 있어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보면 작년 예산에서 올해 삭감이 좀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삭감이 적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두 군데도 아닌데 이 많은 분들, 쉽게 말하면 '악' 소리도 못 내고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222쪽입니다.

주던 것 안 주는 게 굉장히,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월급을 받은 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나갔던 것을 예산에서 이렇게, 운영비 삭감도 문제가 되고 다 그러는데 이거 삭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2017년 대비 6,5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 있거든요, 그 예산 중에. 그런데 여가부에서 국비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 위원** 아니, 그 국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삭감을 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요. 국비가 적게 내려온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비율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의를 하셔야지요,

여가부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것은 좀 후퇴하는……. 그리고 이런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처럼 드러나지 않는 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가 사회복지 보조사업도 하고 또 민간위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민간, 구립, 시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민간에서 지금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구립도 있고,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광진、창동、중랑、동작도 있고, 아하도 있고……….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시립이 6개…….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시립、민간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이나 광진、창동、중랑、동작에서 이런 것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월급을 깎는 것은 아니고요.

○**이순자 위원** 운영비를 깎겠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아니, 국비 매칭된 사업들이 죽는 바람에 시비를 거기에 대해서 매칭 안 한 게 되는 거고요 직원들 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후퇴는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어차피 이 예산이 깎인 만큼 직원들한테도 그만큼 피해는 갑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역에 한번 나가서,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윗사람 보고 하지 말고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여쭤보세요. 후원금 받으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피해를 근무자가 보면 거기에 서비스 받으러 온 그런 분들도 고스란히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 좀 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라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금 네 군데 있는데요 노들장애인야학, 너른마당, 누리평생교육원, 장애인아카데미, 이게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거든요.

○**이순자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임대료를?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학교당?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 해서 140명 정도, 가장 큰 게 노들인데 거기가 67명이고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나이는 어떤 쪽인가요? 나이가 청소년들인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주로 성년들인데…….

○**이순자 위원** 장애인도 어떤 장애인들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체장애인도 있고요.

○**이순자 위원** 섞여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이순자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좀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순자 위원** 그래서 이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순자 위원** 부족한데, 지금은 4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이게 시하고 교육청이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임차료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나머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주고 있거든요.

○**이순자 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도 누군가는 정말 학교가 굉장히 필요해서 말은 못 하고 지금 가슴만 애타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교

육청과 협의를 해서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금년보다는 늘렸습니다. 6,0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까치서당 운영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까치서당.

○**서윤기 위원** 한 10개 기관을 줄인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서윤기 위원** 왜 줄여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25개 자치구마다 한 개 구립도서관에서 하던 게 있는데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안 하겠다, 그래서 10개를 줄이고 15개만 내년도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 해 보고 이 사업을 존치해야 될지, 확대해야 될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도 굉장히 적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한 개당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서윤기 위원** 이게 시작할 때부터 힘들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한 바 있어요. 이게 4년차 사업인가 그럴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2014…….

○**서윤기 위원** 존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억지로 끌고 가는 거다, 몇 개구의 특정 몇 개 단체의 의견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 소멸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화해서 잘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열정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평생교육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 보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꼭지를 잡아서 일괄적으로 쫙 내려야 될 그런 사업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번 예산까지는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동에 자기주도적학습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창동청소년수련관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관 운영 이렇게 동반복적인 사업목표인데 자기주도적 학습이 말로 대충 어떤 건지 알겠지요? 중요한 교육학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업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자치구의 한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1억이에요. 청소년수련관으로 위탁금이 가는 건가요? 아니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청소년수련관에 갑니다.

○**서윤기 위원** 수련관에 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수련관에 가고, 또 외부업체에.

○**서윤기 위원** 그러면 위탁금이 갔다가 다른 외부업체로 가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서윤기 위원** 별도로 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우리가 민간위탁금은 수련관에 주고, 그다음에 운영업체가 있거든요. 코칭을 하거나 자기주도전문기관들이, 거기에 또 주고.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한테, 특히 학습력이 낮은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학교에서 그것을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그리고 창동청소년수련관에서만 왜 하고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면 전체 구에서 다 해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그냥 청소년수련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그냥 지자체 사업으로 연례ㆍ반복적인 사업으로 한 두 번하고 이렇게 또 유지한다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개 구에 계속 이렇게 거기만 지원한다, 이상한 거예요.

또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인데 ‘잠자는 학교도서관 책 주민손으로 보내기’, 이게 1억짜리인데 학교하고 얘기됐어요? 교육청하고 협의됐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이건 시민참여사업인데 한

개 구에서 지금 4개 구립도서관하고…….

○**서윤기 위원** 구립도서관하고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서로 교차하는…….

○**서윤기 위원** 4개…….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구에 4개 도서관이 있는데, (직원을 보며) 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중랑구인가?

○**서윤기 위원** 중랑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중랑에 4개…….

○**서윤기 위원** 1억 가지고 상호 교차시스템을…….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교차시스템 하는 준비…….

○**서윤기 위원** 구축할 수 있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교차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거고요. RFID 다 해서 책 다 찍고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학교에서 책을 대출하는 시스템 안에 포팅돼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하고 4개 구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1억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가 OK 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교육목적으로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빌려서 봐요. 주로 학생들이 읽는 책들이에요.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권장도서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이 빌려서 봐요. 학생들은 그 책을 그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좋아하겠어요?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쓰려고 갖다 놓은 게 주민들한테 가 있어, 그러면 좋아하겠느냐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책이 학교 도서관에서 놀고 있으니까 와서 내가 읽어보면 좋겠다,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그것 OK 안 해요. 협의 안 된 예산이에요. 상대기관하고 당사자기관하고 협의 안 된 예산이에요. 그게 올라와서 통과돼도 집행 못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융합인재양성교육센터 운영도 비슷한 문제를 노출시킬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데서 그 꼭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 예산을 포괄적으로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는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이런 것 면밀한 검토 없으면 시민참여예산 사용 못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필터링 못한다 하는 비판에 직면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시 사업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 사업계획을 해서 한번 따져볼 텐데 자치구 경상보조로 해서 구가 딱 못 박혀 있는 시민참여예산이어서 저도 그런 걱정을 똑같이 위원님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6개 시민참여사업이 저희 평생교육국에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 하는 사업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서윤기 위원** 교육청과 관련한 교육사업은 교육청과도 상의를 해야 돼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사실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 주민참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올라와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복지협의체 만날 가동시키면 뭐해요?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살펴봐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23개에 대해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내진성능평가 이런 것을…….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이명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그게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발주 자체가 금년 10월에 돼가지고.

○**이명희 위원** 10월에 들어갔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내진 관련된 예산은 그 결과를 봐야지 잡을 수 있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한 기능보강은 다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내진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는 거군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지요. 그 결과가 나와야만 내진보강이 들어가는데요.

○**이명희 위원** 30년 이상 된 노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시설보강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30년 이상 된 데는 어디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금 30년 이상 된 게 목동, 서울청소년, 보라매, 문래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목동이 29년, 문래가 30년, 보라매가 31년, 서울청소년수련관이 47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기능보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기능보강을 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시설마다 다른데요.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보라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예전에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건물이라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41년 됐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보완을 했던 그런 시설들이 또 있고 해서 시설마다 각자 맞춤형으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명희 위원** 오래된 청소년시설이 많아서 기능보강을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해 줘야 될 텐데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거든요. 나날이 노후돼가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기능보강 예산이 금년에는 6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46억으로 줄었어요. 시설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 노후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줄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기능보강계획은 일단 오래된 시설 위주로 하되 시설별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명희 위원** 금년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지만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내년에 보니까 기능보강보다도 또 용역에, 주로 용역하다가 말아요. 빨리 대처를 하시고, 시설의 안전도를 생각하셔서 기능보강이 되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지 되는데 매번 용역에 더, 용역 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예산은 오히려 이렇게 점점 더 떨어지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고 무엇 때문에 진단을 합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농상생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수** 금년에 추가로 5개 실시됐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시범까지 해서 여섯 군데.

○**위원장 김창수** 총 해서 여섯 군데거든요. 그런데 다섯 군데도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개소가 11월 20일, 또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개소가 11월 30일, 아직 안 된 모양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11월 30일 내일모레 그때 오픈식을 하고요. 산지와 서로 MOU 하는 것은 12월 초로 다섯 군데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여섯 군데 하고, 금년도 2017년도 예산은 자치단체 보조금이 42억이었다가 내년도에 114억이 된단 말입니다. 114억 중에서 내용을 보면 6개 구는 80억 7,000만원이야.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금년도 참여 자치구가 4

개 구가 또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내년도.

○**위원장 김창수** 내년도에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2018년도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그 대상이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디어디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서대문, 은평하고요. 지금 서대문, 은평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동대문, 성동…….

○**위원장 김창수** 동대문?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성동.

○**위원장 김창수** 성동?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지금 4개 자치구가……

○**위원장 김창수** 확실시된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서대문하고 은평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동대문하고 성동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도 이것을 설치하려면, 그 예산을 지금 33억 잡아놨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려면 지금 해도 시간이 상당히 갈 텐데, 내년이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그것이 내년 상반기는 지나가지고 이루어질 텐데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이게 하려면 절차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그게 서대문하고 은평이 좀 딜레이 돼서 내년 초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성동과 동대문은 상반기 정도 안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예산을 미리 이렇게 다 잡아놓았지 않나 생각돼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일단 6개 이미 된 데는 100% 잡았으니 상관없는데 그 네 군데가 시기가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9개월로 잡았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거기서 딜레이가 돼서 약간 좀 변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올해 시범 5개 더 추가할 때 그것도 빨리 될 줄 알았지만 거의 올 연말 다 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것에 비추어본다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다 된 것은 예산을 33억 잡아놨기 때문에 좀 많이 잡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이 있어요, 230쪽에 보면. 위탁비가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수** 금년에는 179억 5,900만 원, 내년에는 180억 그 정도니까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돈이 비슷하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김용복 전임 국장이 약속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축제 때 각 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모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면은 쏙 빠졌어, 어느 란을 봐도 금년에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다 한 것뿐이지. 그 약속을 실제 이행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어떠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항목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비를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 어떤 후생복지비라든지 뭘 하든지 간에, 체력단련비라도 한다든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 항목을 만들어서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청소년과장이 복안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리 한번 해 보세요.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232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원장 김창수** 어디?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232페이지. 방금 보신 청소년수련관 위탁비가 올해는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39억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원래 올해는 수련관 총 운영비의 16.2% 정도를 위탁비로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18%로 해서 한 2%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늘린 부분 중에서 저희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일정금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

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한 수련관에 한 명당 얼마쯤 돼요?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늘려 잡아서 작년보다 한 20억 이상 증액했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금 한 24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위탁운영비가.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24억이 증액됐는데 24억이 한 사람당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해, 직원이.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도 안 따져봐 가지고 뭐 껌 값 같은 정도 해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고, 아무리 못 해도 그래도 국장님이 축제장에 가셔서 마이크 잡고 저하고 둘이 손잡고 약속했는데, 이거 위원장도 망신당해. 나 이거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요.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복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일단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24억이나 증액된 것은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렇게 된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좋은데 24억이 숫자로 나누면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한번……. 저기 나오네, 자료. 한번 봐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을 사람당 해서 얼마를 하면…….

○**위원장 김창수** 평균 내서, 여기서 알기만 하면…….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정원으로만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디로?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지금 현재 수련관 정원으로 따져서 24억을 나누면 400만 원 꼴 정도 돌아가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좀 더 세밀히 연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한 수련관마다 400만 원?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아니요, 정원 대비. 사람당이요, 일인당.

○**위원장 김창수** 아, 일인당 400만 원?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자세히 자료로 이따가 줘 보세요.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문제는요 위탁운영비를 이렇게 올려줘도 관장이, 거기 이사장 있잖아요. 운영 주체자들이 자기들이 다 갖다가, 그것이 직원들한테는 넘어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련관에만 혜택이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수련관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후생복지를 올려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뭔가 도와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해서 24억을 넘겨줘버리면 관에서 자기들이 다른 데다가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떻게 해야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아셨어요?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아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은 아까 이명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겠는데, 보면 금년보다 내년이 한 13억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것이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18억을 증액시켰어요, 의원 예산으로. 그런데 그것을 싹둑 다 잘랐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렇다보니 하나도 증액 안 되고 더 삭감됐어요. 우리가 금년에 60억 정도였지만 의원 증액을 18억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47억이잖아요? 47억인데 너무 부족해요, 우리 의원이 18억을 증액했는데도 이러니까. 그래서 기능보강비도 손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이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70%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또 국비가 와야 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시설보강 사업은.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기능보강비도 좀 문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는 예산과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것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년과 같이 매년 하듯이 그냥 수련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수영장하고 에어로빅하고 노래교실 정도로 흐르면 안 된다, 아무리 오전에 유휴공간이니까 그때 와서 이용한다 하지만 그렇게 그분들의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라, 취업과 관계된 일을 하라고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난번에 저희가 희망도시 서울 발표할 때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을 위한 토털케어 센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형 개발하고 시범사업 하고 전 수련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저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이 성인 위주에서 완전히 청소년시설로 가야 되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요즘 요구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되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활동 자체를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적극 건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여기서 인정하는 시간은 학교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 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협조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수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예산을 얼마나 뒷받침했느냐를 물어봤지요, 제가.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저번에 친화도시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시 내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잘려 가지고…….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말씀만 하면 뭐해? 뒤에서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예산에서는 받침을 안 해 주고 말씀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으니까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예산을 많이 좀 증액해 주시면…….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예산 증액항목을 한번 내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전문위원실에 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내서 그것이 진짜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서윤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서윤기 위원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인데 시민학습활동 지원시스템 개발 이게 뭐예요? 시민학습활동 지원시스템 개발.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것도 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평생포털 있지 않습니까. 포털처럼 온라인상에 전산개발 해 가지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하자는 거거든요.

○서윤기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평생교육과장 김명주입니다.

시민이 제안하신 사업으로서 시민분이 제안하신 내용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화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검색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평생학습포털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검색도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우선 시민분이 저희에게 평생학습포털이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인지가 안 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포털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구가 없으셨고 그냥 저희가

하는 포털에 있는 사업의 취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경아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거기서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이 자치구나 또 국가 평생학습포털하고 다 연계가 안 되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이경아** 지금 국가 평생교육포털과 연계되어 있지만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연계해서 하기에는…….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집행부석에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다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서윤기 위원** 들어가세요.

그럼 이 시스템은 완전히 별도로 만들자고 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운영주체를 지금 평생학습,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하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평생학습포털은 서울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의견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위원님 생각하고 100% 동감이고요. 이미 서울시에서 평생학습포털을 매년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있거든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고도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시민이 정확하게 모르고 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이지만 하여튼 유용성이나 활용성 면에서 의문시되는 사업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계속 문제제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기조실에서 한번 검토하면 관련 예산 최종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담당부서에 죽 뿌려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주고, 그 검토의견을 가지고 또 주민들끼리 시민들끼리 이게 있다더라 내지는 이게 중복사업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의회에 예산심의 와서, 본 위원이 아니까 이게 딱 걸리는 거지 알지 못하면 이것 그냥 예산편성해서 또 불용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우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식재료를 구입하는 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이용하는 경우에는 350원, 미이용 시에는 305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350원, 305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일반학교는 그렇고 특수학교는 그냥 똑같고요.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 학교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96개 교로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전체 몇 개 고등학교예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고등학교가 318개 교 있는데요.

○**이명희 위원** 318개 중에서 96개 학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군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렇게 공공급식까지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아까 17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 고등학교도 일부만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를 다 친환경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고교 무상급식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단계인데요. 이제 고교가 만약에 의무교육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친환경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거로 보는데요.

○**이명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도 일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일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이명희 위원** 그래서 공공급식이라는 것은 학생 아닌 일반 복지시설까지도 작금 확대하려고 하는 마당이니까 학교급식에서 고등학생 전체를 다 지원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게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차액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네. 무상급식이 아니고 차액 지원하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차액만 300원, 350원 지원하는 건데, 또 이게 자치구와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와도 예산이 같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확대되는 건 좋은데 소요되는 예산, 그다음에 자치구와의 협력 이런 것까지 또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의 학생들이 일부는 친환경급식 차액을 지원받고 일부는 지원을 안 받고 이렇게 불평등하니까, 그런 대상이 확실한 고등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공공어린이집 이런 데 찾아다니고 복지시설 찾아다녀서 수요를 늘리려고 그렇게 애를 안 써도 학생들에게는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는데 거기는 놔두고 지금 딴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거든.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도 내년도부터는 확대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봐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저희가 독려를 해 보고요. 자치구가 참여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내년도에도 자치구 참여를 더 독려해서 필요예산을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153쪽, 평생교육진흥원 건데 153쪽 제일 밑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수** 예비비 3억 3,957만 원, 그래 가지고 증감사유 내역을 보면 예비비는 모두의 학교 운영에 따른 증원인력 7명 및 기능직 전환자 인건비 등 반영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학교 인원이 일곱 명 늘어나고 기능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그 인건비로 3억 3,900만 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단 뜻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예산편성을 바로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비비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지방공기업 지침에, 내년도 2018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원 증원에 해당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금지하라 이렇게,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수** 다시, 방금 그 뜻이 뭔 말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금지해라,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적으로 인상조치 하는 것 이야기고, 편법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모두의 학교 운영에 따른 인력증원이 7명으로 확정이 됐다면 바로 인건비에다 편성하면 명확하게 되고, 또 기능직 전환자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편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건비에다 편성해서 하면 될 텐데…….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과장이 정확하게 한 번…….

○**위원장 김창수** 네,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평생교육과장 김명주입니

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 저희가 공기업담당관에서 받아서 있는 자료인데요, 지침에 근거해서 정원으로 승인받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일곱 명은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가 일곱 명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네, 증원.

○위원장 김창수 지금 모두의 학교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아니요, 10월 28일 개관을 했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때…….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세 명은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반영해서.

○위원장 김창수 정원 세 명은 늘어났고?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네, 그것은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됐고, 그러면 네 명은?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아니요.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아닙니다. 나머지 추가 일곱 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나머지 추가 일곱 명은?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추가 일곱 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승인받고 편성하기 전에는 예비비에서 쓰겠다 그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네. 정원으로 승인받은 후에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에 대한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전 10시부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혁신기획관 및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수 문영민 이명희 김용석(도봉)
박호근 서윤기 이순자 조규영
김현기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직무대리	신종우
자산관리과장	정상훈
계약심사과장	안호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평생교육국

국장	주용태
교육정책과장	배형우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백자영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철
기획조정국장	이경아
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정헌재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이기완(겸임)
공간정보담당관	박문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김현규
복지본부장	김용복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이원목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최승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남진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오희선

○속기사

유현미 김철호